



뉴스잡지 137호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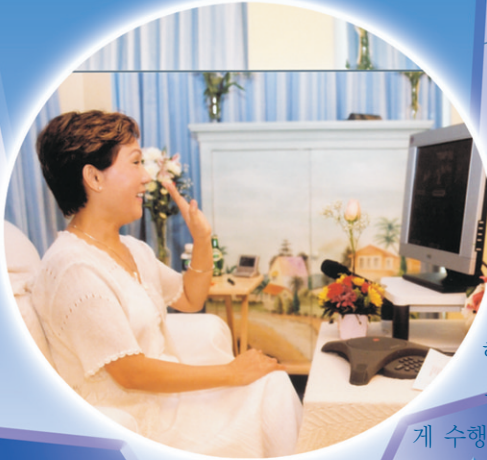
관음가족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사제지간의 인터넷 화상회의  
자세한 내용은 "특집 기사"편을 참조할 것.





# 전전 영상통신 시대의 가장 축복 받은 수행자들

칭하이 무상사 / 2002. 8. 3. 회상회의  
(원문 중국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서로 마주보며 수행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수행하며 온갖 편리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육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너무나도 복이 많군요! 다 함께 신께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부좌를 하고 명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숭고한 이상과 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명리와 부,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많은 신체적 요구에도 신경 쓰지 말고 두뇌의 명리심에도 속지 마십시오. 계속 수행해 나가지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점점 놓게 될 것이며 더욱 고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승려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승려 말이에요. 우리 내면은 즐겁고 자유롭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자신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또 그래야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남이 찬탄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 수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일단 얻고 나면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훔쳐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얻고 나면 그 축복을 간직해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승님의 말씀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2개 국어 자막>

701 위대한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하여

2000. 5. 12. 한국 영동 국제 선육

이 법문에서 스승님은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과 힘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며 또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석을 전해 주셨다.

\*왜 스승의 허락 없이 내면의 체험을 누설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위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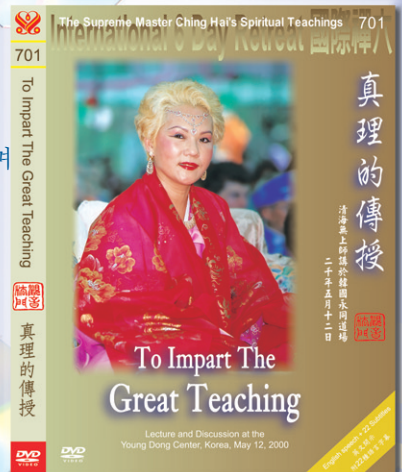
\*대부분의 질병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지혜로 가득찬 심오한 강연을 통해 수많은 영감과 이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고양





현대적인 스승님이 첨단기술을 활용  
해 전세계 중생들을 축복하십니다.

~ 청하이 무상사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7호

출판일자 : 2002. 12. 21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  
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 스승님 말씀

선진 영상통신 시대의 가장 축복 받은 수행자들

## 앞표지 안 / 37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 비디오 테이프

## 2 특집 기사

스승님의 새로운 전지구적 통신망 '사제간의 화상회의'  
인터넷으로 국경을 넘어

## 8 / 19 생활의 팁

천연 방충법 / 모기를 막는 묘안

## 9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수행인의 상서로운 진동력

## 10 사제시간의 편지

세속을 넘어 하늘 높이 비상하다

## 1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하라

## 16 스승님의 농담

착각은 자유 / 모자란 만큼 후진해 주세요 / 돈이 무엇인지!

## 17 신기한 감응

의미 깊었던 중국 본토 여행 / 스승님의 도움으로 비행 사고를 모면하다

## 20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잘못을 만회하는 좋은 방법

## 22 골라 뽑은 수행문답

스승과 중생 간의 인연 관계/ 동정심 역시 기도다 /  
우리는 모두 우주적 대계획의 일부분이다 /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 27 진실한 이야기

로니와 신비로운 송과선

## 29 예술과 영성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  
웨르크 슈리흐 사형과의 인터뷰

## 33 스승과 제자 사이

내 마음을 아시는 스승님/ 시기 적절한 도움/ 무언의 사랑의 노래 /  
내적인 유대 관계 /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 /  
장부에 올릴 것 / 못 즐기

## 38 외향

'만물 동일체'에 대한 성찰 / 크나큰 우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 40 다채로운 이벤트

포모사 종합 보도 / 대한민국 / 홍콩 / 미국 인디애나 / 칠레 /  
캐나다 온타리오 /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 47 행사 메모

## 48 사랑의 실현

포모사 타오웬 / 포모사 타이난 /  
2002년 5월에서 6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 50 스승님의 추천 영화

## 51 관음 웹사이트

## 52 전세계 연락처

## 뒷표지 / 무상예술

우아하고 섬세한 니트 웨어 - 린넨의 감촉으로 로맨틱한 여름을!



## 스승님의 새로운 전지구적 통신망

### ‘사제간의 화상회의’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로스앤젤레스] 2002년 7월 21일 전세계적인 최첨단 통신 기술을 통한 스승님과 과의 화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미국 LA, 오스틴, 오하이오, 아시아의 네팔, 마카오, 유럽의 폴란드, 오스트리아가 참여했다.

화상회의 전날, LA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이 일요일에 센터로 ‘전화’ 하실 것이란 소식을 받았는데, 그 ‘전화’가 전세계 각 도시의 입문자까지 다 함께 통화할 수 있는 놀랍고 획기적인 화상회의일 것이라곤 상상치도 못했다! 회의에 앞서 LA 센터 기술 팀들은 화상회의를 실현시킬 비디오 스크린과 프로젝터, 컴퓨터, 전화 배선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는 동안 올해 5월 스승님의 생신 축하 행사 이후 처음으로 스승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수많은 사형사제들이 단체명상에 참가해 LA 센터 명상 홀은 스승님의 자애로운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동수들로 가득 찼다.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마무리되자 스승님은 장난스럽고 파스하게 안부를 물으며 회의를 시작하셨

다. “모두들 명상 잘 하고 잘 먹고 잘 자나요?” 하신 말씀에 LA 센터 동수들은 “예!”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으며, 이어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하셨다.

첫 번째 질문은, “상호간에 오해, 나아가 전쟁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의 힘을 통해 말 없이도 교통할 수 있는 경지로 이 세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였다. 이에 스승님은 우리가 명상을 더 많이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등급을 얻을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 사람들의 등급이 같지 않기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숭배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모두가 영혼으로 교감하는 등급에 이를 때까지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면 우리는 언젠가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

다른 사제가 “최근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전쟁과 분쟁,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호





전시하기 위해 명상을 더 많이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여쭙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가슴 깊숙이 묻어 버리고 베풀길 거부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갖고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받는 감정적인 상처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가슴 깊이 낙인 찍히게 되지요. 전쟁은 우리가 항상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들처럼, 그리고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1분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 어린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해묵은 상처, 안 좋은 사건 등 과거를 잊고 그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전쟁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처럼 수행하지 않기에 우리가 수행을 잘해도 역시 그들의 고통과 오해는 함께 나뉘야 합니다. 평화를 실천하고 명상을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언젠가 평화와 접촉해 우리 내면의 고아한 자장을 발산시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애완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한 젊은 미국 동수는 ‘우리의 수행이 진보한다면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또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가며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면 애완 동물들의 영혼 역시 진보하는지’ 궁금해했다.

스승님은 그녀에게 동물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 수행의 목적이 아니란 점을 상기시켜 주셨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애완 동물이 죽은 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스승님은 그들 역시 천국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셨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왔다가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듯이 말이다.

다음은 한국 사형의 질문 내용이다. 한 번은 집에서 명상하던 중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빛을 보자, 몸이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너무나 놀란 그는 빛을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스승님의 법호만 외우다가 빛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했다.

이 경우에 대해 스승님은 그 사형에게 긴장을 풀고 그것을 즐기며 오불을 외우라고 답하셨다. 그런 일은 굉장한 축복이며, 그로 인해 오불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므로 긴장을 푼 채 그 빛과 일체를 이루라고 하셨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질문한 채식식당에서 일하는 한 사저는 관광할 때 이전보다 잘 안 되는데 이것이 그녀의 음식이나 일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또 사저의 17세 된 딸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즐겨하면서도 점점 명상하는 것을 힘들어해 단체명상에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딸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고민스러워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스승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빛에 쉽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에 쉽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아마 음악을 더 좋아해서 소리가 항상 있고, 또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빛은 깜박거리는데 집중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 나가면서



시간 비율에 따라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든 신이 돌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저의 딸에 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셨다. “단체명상에 함께 갈 같은 또래의 동수가 있나요? 그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면 그녀는 한결 의지가 될 겁니다. 때론 같은 세대들끼리 말이 더 잘 통하고 서로에게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저가 비입문자 가족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 사저의 가족은 부정적인 생활 방식에 빠져 살면서도 “이건 내 인생이니 내가 경험하고 선택할 일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사저는 결국엔 그가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녀가 수행하며 거쳐야 할 공부인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스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 껄념치 말고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겁니다. 설령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마다 내면에 신이 있으니까요! 그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든 그것도 신이 결정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울락 동수의 질문이었다. “신은 보이지 않는 힘이며 우리가 걷고 서고 눕고 앉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항상 신을 생각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신의 형상을 알고 생각할 수 있을

까요?”

스승님은 간단히 답변하셨다. “계속 명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의 신의 본질을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요. 머지않아서 당신은 신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수행의 목표이지요.”

이 문제에 답변하신 후 스승님은 모두들 행복하다고 물으시며 앞으로 화상회의를 더 많이 개최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디오 스크린에 비친 몇몇 동수들에게 안부를 물으셨다. 그 중에는 스승님과 오랫동안 함께 수행을 한 동수들도 끼어 있었는데, 스승님은 오래된 동수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다정하게 말씀을 덧붙이셨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매우 행복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스승님은 또한 스승님을 ‘고양시키는’ LA 센터 동수들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덧붙이셨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수들과 농담을 하시면서 다음엔 이번엔 기술적으로 미비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 화상회의에선 비디오 스크린에 더 짧게 비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동수들이, “스승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을 모아 외치자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스승님께서 화답하셨다. 이 인사를 교환하며 LA 센터 동수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스승님과 전세계 제자들과의 ‘온라인 재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 인터넷으로 국경을 넘어

앞서 말한 대로 관음가족의 첫 번째 인터넷 화상회의가 2002년 7월 21일 LA 센터를 비롯한 여러 센터 동수들과 함께 개최되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후 스승님은 인터넷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 동수들과 대화를 나누셨으며, 이에 따라 30여 개국의 수많은 센터들이 이 소중한 and 진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사제간의 화상회의를 경험한 동수들은 선진 영상 기술을 통해 1대 1로 스승님의 모습을 대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큰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다음은 여러 센터의 관련 소식들이다.

### 싱가포르 센터에 나타나신 스승님의 특별한 '화신'

**[싱가포르]** 2002년 8월 11일 오전 싱가포르 사람들이 37주년 독립기념일 경축행사를 막 끝냈을 무렵, 200명이 넘는 싱가포르 동수들은 그들에게 있어 보다 의미 깊은 스승님과 화상회의를 위해 싱가포르 센터에 모여들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스승님은 우선 새로운 싱가포르 센터를 축하하는 '가상 리본 커팅식'을 치르셨다. 반대편에 계시는 스승님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막 리본을 카메라 앞에 두고 스승님이 가위를 앞으로 뻗어 리본을 커팅하시자, 싱가포르 센터에선 미리 잘라 살짝 붙여놓았던 리본이 '마술처럼' 춤추는 사자 앞에 떨어졌다. 사자와 한 사자 동자가 함께 카메라 앞에서 경중경중 뛰면서 춤을 추자 스승님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에 흥겨워하시며 웃음을 터뜨리셨고, 동



수들은 스승님의 웃음소리에 큰 환호로 응답했다.

사자춤 공연이 끝난 후 스승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시면서 많은 용기를 주셨고, 이에 우리는 큰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화상회의가 끝날 무렵 스승님은 우리의 ‘깜짝 케이크’를 발견하시고는 “그거 케이크예요?” 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물으셔서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스승님께 드릴 마지막 ‘깜짝 선물’이 발각된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 평화를’이라고 쓴 두 개의 거대한 채식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는 스승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화상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신 스승님에 대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표시한 것이었다. 이 화상회의의 시간 동안 수만 명의 동수들이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스승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관음가족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어서 동수들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감사의 표시로 케이크를 잘라서 한 조각 스승님께 드리고 무알콜 맥주를 손에 들고 스승님을 향해 축배를 들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스승님께서 음료를 따라 건배하시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주시면서 이번 화상회의는 원만히 끝을 맺었다.

**[미국 뉴저지]** 2002년 7월 28일 이른 아침, 뉴저지 센터 작업 팀은 분주히 명상 홀에 영상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그날 오후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 스승님과의 실시간 강연을 보기 위해 명상 홀로 모여들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스승님의 말씀이 방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나이 든 동수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는 등 모두들 지구촌 한 이웃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또 우리들은 화상회의에 참석한 전세계의 신실한 동수들을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뉴저지 센터

동수들에게 화면에 나타나 인사말을 하시자 동수들의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며,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인터넷을 통해 스승님을 뵈 다음 기회를 고대했다.

**[홍콩]** 연달아 두 번 일요일마다 행운의 신이 홍콩에 찾아왔다! 전세계 각지의 관음가족과의 인터넷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공을 초월한 이번 화상회의로 먼 곳에 있는 동수들은 하나가 되었으며, 화상회의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홍콩 동수들은 화상회의가 있을 때마다 매번 참가 인원수를 갱신했다.

첫 번째 화상회의가 발표되자 동수들은 기쁨에 넘쳐 화상회의의 장소로 모여들었으며, 스승님을 ‘1대 1’로 뵈고자 기다리는 동수들의 얼굴에는 감미로운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TV 화면에 스승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비춰지자 모두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그 즉시 스승님의 사랑의 바다에 흠뻑 젖어들었다.

많은 동수들이 세상의 도구를 자유자재로 이용해 중생에게 무한한 이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스승님의 위대한 지혜에 입을 모아 찬탄했다.

더욱 기뻐했던 것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선에서와 다름없는 가파력과 아름다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동수들이 평소 근엄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순수하며 즐겁게 바뀌는 느낌을 체험했다.

**[캐나다 토론토]** 2002년 8월 4일 사랑하는 스승님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해 온 토론토 동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TV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곧이어 스승님이 화면에 나타나셔서,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 말씀을 듣고 수행에 관련된 질문을 갖고 있었던 동수들은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한하고 완벽한 지혜를 지니신 스승님과 ‘얼굴을 맞





대고' 대화를 나눴다. 스승님은 동수들의 질문에 즉각 막힘 없는 답변을 해주셨다. 동수들은 첨단 기술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스승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를 통해 무한한 축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2002년 8월 초, 스승님께서 포모사 동수들과 화상회의를 하실 때, 멀리 떨어진 남미의 아르헨티나 동수들도 화상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아르헨티나 동수들에게 있어서 이는 관음가족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8월 3일 토요일 밤,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수들은 한 인터넷 카페에 모여 스승님을 '뵙는'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 졸이며 기대했다. 아르헨티나 동수들 중 극소수만이 광대역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었고 모뎀을 통한 연결은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연을 못 보게 될 경우를 염려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스승님의 모습이 나타난 순간 카페는 특별한 에너지로 넘쳐흘렀으며, 동수들은 그 즉시 기쁨과 사랑의 힘이 그들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화상회의가 끝날 무렵 스승님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몇몇 국가의 동수들에게 사랑이 담긴 안부를 건네셨는데, 아르헨티나 역시 포함되었다. 와, 정말 얼마나 놀랍던지!

남미 동수들은 스승님을 뵙기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자 문제로 일부 동수들은 스승님을 직접 뵙 수 없었다.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그 소망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언제나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전세계 중생들을 축복하시는 '현대적인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포모사]** 2002년 8월 4일, 시후 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동수들은 최신 통신 기술을 통해 '장애 없이 감정을 교류하는' 경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날 먼 외

국 땅에 계신 스승님은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포모사 동수들과 실시간 대화를 진행하셨는데, 마치 스승님이 직접 오신 것과 같았다. TV 화면을 통해 포모사 동수들은 예전처럼 유머스럽고 기지가 넘치는 말씀을 해주시는 스승님을 뵈며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조금의 거리감도 없이 말이다!

당일 오전 TV 스크린에 친숙한 스승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잘 지냈나요? 명상엔 좀 진보가 있나요?"라는 자애로운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스승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메아리쳤다. 하얀 옷을 입고 나오신 스승님에게선 우아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가 자연스레 퍼져 나와 참석한 동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질문에 사랑으로 답변하시며 다정하고 유머스럽고 지혜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강연을 진행하셨다. 참석한 모든 동수들은 마치 봄이 다시 온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따라 수시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요즘 세계 각지의 몇몇 동수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마장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승님이 특별히 보낸 비밀스런 사자라 하며 스승님 대신 법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동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고 우리 단체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보다 굳게 보호하고 마야에게 넘어가지 않을까요?"라고 한 동수가 질문하자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만약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을 보내 법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단체 명상에 참석하고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오디오 테이프를 들으며 내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



고 더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수행에 관한 질문 외에 한 동수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제지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건 좋지만 이로 인해 스승님을 직접 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자, 스승님은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시키며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아직은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요.”

또 다른 동수가 중국과 포모사의 평화를 위해 신께 기도해 달라고 스승님께 요청하자 스승님은, “문제없어요. 이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라고 하시며, 동수들이 명상하고 수행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덧붙이셨다. 우리의 자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스승님은 또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들 소용이 없으므로 더 많이 수행해야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스승님은 우리의 각 방면에서의 활약

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또 수시로 포모사 제자들을 그리워하지만 지금은 돌아오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많은 동수들은 가슴속에서 그동안의 그리움이 사무쳐 올라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어 스승님은 모두를 향해 가슴 깊은 축복을 해주시고 전세계의 동수들에게도 인사를 전하시며 40분 간의 화상회의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으셨다. 많은 동수들은 화면이 꺼진 후에도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 맺으며

인터넷 화상회의라는 방식을 통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이 세계 각지에 동시에 전해져 많은 대중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전세계 제자들의 갈망 또한 충족시켜 주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자비로운 신계선 수많은 홍법의 훌륭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스승님이 말씀해 오셨던 희망과 비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우리 함께 다가오는 황금시대를 맞이합시다!” ★



생활의 팁

## 천연 방충법

청하이 무상사/ 2001. 6. 23.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컨벤션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711

물과 식초를 반반 섞어서 집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살균도 되고 냄새도 없애며 곤충들을 끌어들이는 냄새도 지울 수 있습니다. 벌레가 들었던 물건은 모두 깨끗이 씻어 햇볕을 쬌고 털어 내고, 매일 혹은 자주 물과 식초를 반씩 섞어 청소하십시오. 냄새를 참을 수 있다면 식초를 좀더 타세요. 그리고 집 밖에서 창틀이나 문틀에 무독성 방충제를 뿌려 두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들어오겠지요. 일 주일에 한 번이나 가끔 방충제를 뿌려 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깨끗이 씻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충들이 번식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





## 수행인의 상서로운 진동력

관음사자

2002년 7월 18일 칠레 산티아고 센터의 연락인은 내게 그곳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 심리학자를 방문하자고 했다. 그녀는 아이를 분만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녀가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10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약도대로 복도 가장 끝에 있는 집을 찾았을 때 그 울음소리가 이 여성 심리학자의 딸의 울음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가 어찌나 크게 우는지 멀리 떨어진 다른 집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우리는 우선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기는 우리를 보자마자 즉시 울음을 그치고는 방긋방긋 웃었다. 아기의 갑작스런 변화에 놀란 아이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고 말했다. 한참을 울어대서 어르기도 하고 우유를 먹여 보기도 했지만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기는 우리를 보자 놀랍게도 천사처럼 미소와 함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앉아서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후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는동안 연락인이 아기를 넘겨 받아 품에 안았다. 이어서 우리는 교도소 홍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몇 년 전 한 관음사자가 이곳 교도소를 방문해 탁구대와 의자, 기타 많은 물품들을 전달한 바 있었고 지금도 계속 스승님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심리학자를 찾아온 것은 이 의미 깊은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연락인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던 아기가 좀 지나자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기가 아마 너무 지루했나 보다고 생각하며 아기를 받아 안았다. 아기는 조금 피곤한 듯이 보였는데, 내 어깨에 매달려 이내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라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라고 얘기했다. 나는 속으로 아마 내 몸에 잠자는 기운이 배여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이다!

아기는 한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나서는 나의 무릎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에 그 심리학자에게 채식을 하고 명상해 보라고 격려하며, 명상을 하면 그녀 자신과 아기에게도 매우 이롭고 그녀의 일에도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통하여 수행자의 자장이 정말 범상치 않음을 목격한 터라 매우 큰 관심을 나타냈다! ★

# 세속을 넘어 하늘 높이 비상하다

방편수행자 스티븐 세로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원문 영어)

지난 뉴스잡지 128호 '다채로운 이벤트'에 2001년 5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이 리우콥 감화원을 찾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이 활동으로 재소자들이 방편법을 전수 받았는데, 그 중 한 예비 입문자는 리우콥 감화원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하는 동안 스승님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그는 출소하고 나서 스승님의 축복으로 남자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편지는 그의 신실한 기도, 그리고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과 힘, 지혜에 대한 그만의 특별한 체험을 담은 것이다.

우주의 성모(聖母), 칭하이 무상사님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비롭게 대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소서.

리우콥 감화원에 있던 어느 날 저녁, 침상에 누워 스승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주 성스럽고 기쁜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요? 어쨌든 비입문자에게 말했다면 결코 제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았던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신부님께 그 비전에 대해 말씀드려 보기도 했는데, 신부님 역시 제 경험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스승님이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셔서 저는 구름 위로 높이 날아 올라 이 세상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동물들이 있고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이었는데, 제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스승님이 나타나셨지요.

그 가운데에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옥좌가 있었는데, 스승님은 거기에 앉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끈기있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승님을 뵈러 제가 여기





천국에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여쭙자 스승님은 “물론이지요.” 하고 말씀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하느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하고 혼자 중얼거리자 내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말씀이 들려 왔습니다. “그렇다, 스티븐! 사랑하는 우주의 어머니를 따르라. 그녀는 너를 나에게 인도해 줄 것이며 너 역시 축복받을 것이다. 스승을 따르기만 한다면 오직 행복만이 함께할 것이다.” 저는 스승님께 다시 여쭙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머물러도 될까요?” “안 돼요, 스티븐.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즐거운 듯 웃어 주셨습니다. 진 스승님에게서 가슴 깊이 가득한 사랑과 순수 그 자체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는지 여쭙자,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스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셨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부모님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안 돼요”라고 스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자 스승님은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칭하이 스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스승님께서 다시 한 번 몸을 뒤로 젖히시며 특유의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생각이 맑아지고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제 아버지를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스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이 식지 않으리란 걸 압니다.’

칭하이 스승님 덕분에 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4일  
남아프리카 리우콥에서  
스티븐 세로니 올림.

SOCIACIÓN INTERNACIONAL  
LA MAESTRA SUPREMA CH  
PO. BOX 9 HININ.  
FORMOSA



#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하라

청하이 무상사/ 1988. 8. 12. 포모사 이란 선철  
(원문 중국어)



독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재치가 있으며 어떤 점이 나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해결 방법을 빨리 떠올릴 수 있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혜는 사용할 기회가 없어 곰팡이가 슬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답답하고 좋지 못한 상황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매일 다리를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쓸 수 없지요. 지혜는 활용해야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에 혼자 숨어 살며 명상으로 아주 높고 아름다운 경지에 갔다고 합시다. 명상이 끝나면 돌아와 밥을 먹고 그런 후엔 다시 높은 경계로 갑니다. 이런 삶이 사회에 유용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일하는 것 역시 선(禪)이며 밥 먹고 잠자는 것 모두가 다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면의 주인이 일하는 것이지 이 육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는 우리 내면의 주인이 우리 손을 지휘해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실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내면의 주인은 머리를 짜낼 것입니다. 그는 이곳을 더 넓히고 밖의 물을 베고 난 후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욕실을 몇 칸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겠지요.

## 고난은 성인을 만든다.

여러분은 늘 자신의 응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혜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자고 이래로 깨달은 성인들은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고생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단련한 것이든, 상황에 의해 단련된 것이든 말입니다. 스스로 훈련한 게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련됐지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은 고생을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풍족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상황에 지나지 않습



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내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스승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울락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요?” “한의사입니다.”,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는 있나요?” “없습니다.”, “전 남편은 무슨 일을 했나요?” “의사였습니다.”, “무슨 의사인가요?” “치과의사이자 외과의사입니다” 등등을 물으면 나도 그에 따라 답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답변을 모아 나의 약력을 쓰지요. 나의 약력엔 턱없이 부족한 자료들이지만, 나의 ‘진짜 약력’은 여러분이 믿지 못할 테니 이렇게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이 쓰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될 거예요!

사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고생스레 훈련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정말 고생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되며, 우리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의 진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또한 우리가 만든 것이지요. 왜냐고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업장으로 고통받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를테면 우리의 진아는 누가 우리를 벌하고 때리고 욕할 것인지 혹은 어떤 달갑지 않은 상황을 ‘안배’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업장이 만들어 낸 것이며, 우리의 진아가 이런 안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때렸는데 이생에서 해탈하려고 하면, 이전에 우리에게 맞은 사람들은 원한을 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아는 그것을 알지요. 우리의 진아는 무엇이든 압니다. 그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공정하게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뒀으므로, 이전에 때렸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욕하는 것이니 그들을 탓해선 안 됩니다.

때로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 절을 할 것처럼 겉보기엔 아주 온순하고 겸손하지만 나는 매번 꾸짖습니다. 여러분으로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미세한 업장과 미세한 에고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저 겉모습만 볼 뿐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지요.

반대로 겉보기엔 아주 거칠지만 그 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간 지내 보면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며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대중: “예.”) 그런 겁니다.

## 내면의 보리의 씨앗을 키워 나가라

그러나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가 좋은 나쁜든, 에고가 크건 작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모두 해탈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정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본래면목의 소리를 들은 처음 순간, 보리의 씨는 이미 영원히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무엇인지, 또 내면의 본래면목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진정으로 이 법문을 믿는다면 이것을 점점 이해하게 될 것이며, 점점 홀가분해지고 압력도 적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이미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 더 커지고 나면 아주 큰 보리수가 되겠지요.

우리 법문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히려 쉽게 믿지 못합니다. 만약 좀 복잡했다면 다들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을 읽고 절을 하고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밀교에서는 하루에 한 번 공양하거나 법회를 한 번 열 때마다 108가지의 물건이나 1008가지의 일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모두들 그곳을





찾아와 목불(木佛)에 아주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내게 살아 있는 부처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나의 자장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활불(活佛)’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어떤 여자들은 긴바지를 일부러 높이 말아 올리고 ‘불경스럽게’ 누워 쉬는 겁니다. 다른 절에 가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대중: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불을 보는 순간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며 밖에서부터 절을 하며 들어가지요.

태국이나 미얀마, 어울락, 스리랑카 같은 곳의 사원들은 들어가는 문이 아주 먼 밖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사원에 들어올 때 그 문에서부터 신을 벗고 맨발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절을 하며 들어와야 합니다. 목불을 섬길 때도 이러한데,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보이려고 바지를 그렇게 높이 걷어올리고 나를 봐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긴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건 좀더 고상해 보이도록 한 것인데, 바지를 그렇게 높이 말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럴 바에야 안 입을 게 낫지요.

## 무명한 중생, 거꾸로 된 세상

그러니 중생이 무명한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대상, 절해야 할 곳에서는 절하지 않고 절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그렇게 북적거리며 아주 공손하게 처신하며 한 발자국 땔 때마다 절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요? 이 세계는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있었을 때, 발을 다치고 공격을 당하고 무고(誣告)를 당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공자가 비방을 당하고 여섯 나라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반면에 절들은 매일 향과 꽃, 과일 공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절에는 본존불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엄숙합니다. 토지신조차 아주 영예로운 대접을 받아, 매일 사람들이 신선한 꽃과 깨끗한 물, 새 향을 가져오고 자발적으로 청소도 합니다. 심지어 토지신을 아주 깨끗이 씻기기도 합니다. 으리으리한 토지신 사당들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돈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 한 칸을 갖고 있는 내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토지신은 나처럼 초가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집에 살

며 울긋불긋 칠해져 있고 반짝반짝 윤이 나며 매일 사람들이 등을 켜고 꽃을 바칩니다. 내 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때로 시자들이 청소하기도 하는데 그 더러운 물을 3일도 넘게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전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때 나는 그 물을 깨끗한 물이라 생각하고는 입을 행구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절의 불상 앞에는 매일 깨끗한 물을 갖다 놓습니다.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데 말이죠. 그러니 이 세계가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리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수록 더욱 이해하게 되지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빨리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불하지 못했다면 누가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와서 배우는데,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누가 성불할 수 있겠어요? 언제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존중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진리를 찾고 더 많이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준 스승을 믿을수록 더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속에 숨어 수행하는 사람



은 아무功德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롭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불보살이 우리에게 준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어느 누구도 돕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출가자든 재가자든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생을 돕고 싶다면 그것이 최선책입니다. 성불을 했던 아니든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부처는 겉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으나 우리가 그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부처인 것입니다.

## 수행의 진지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수행을 엄숙하게 할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엄숙함은 내면이 엄숙하다는 것이며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성불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견 모두들 아는 사실이지만, 일부러 티를 내어 어떤 특별한 옷을 입거나 엄숙한 모습을 연출하신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불해야 하니 날 내버려두시오! 나는 수행해야 하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도(道)’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본래면목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며, 진정으로 생사에서 해탈하길 원해 일할 때도 그 생각만 합니다. 꼭 오불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불을 외우는 것만이 수행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을 잊어도, 마음속으로 해탈을 염원하고 불법승(佛法僧)을 생각하고 깨닫고 지혜를 얻길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행주좌와(行住坐臥) 모든 것이 선(禪)인 사람입니다.

수행은 하루종일 가부좌를 하고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할 때 마음이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갓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앉아서 하는 편이 비교적 선정에 들기 쉽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보고 밖으로 눈을 돌리면 집중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막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가능한 오래 명상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 마음은 안에 머물게 되어 설령 앉아 있지 않아도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일할 때도 수행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듯이 입문한 후에는 동수끼리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이 세계의 무상한 관계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세상을 떠날 때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나와, 동수와 함께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佛)은 살아 있는 큰스승을 뜻하고 법(法)은 우리의 보배로운 관음법문을 뜻하며 승(僧)은 우리 동수들 전체를 뜻합니다. 승이란 결코 성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수행하는 단체’, ‘진리를 이해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의 응석을 너무 받아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구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너무 좋고 너무 편합니다! 스승도 있고 관음법문도 있으며, 몇 년, 몇십 년 어찌면 며칠 후면 곧 해탈할 테니까요. 그러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세생생 다시 윤회하고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





## 짝각은 자유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결혼한 지 오래된 노부부가 어느 날 공원을 함께 걷다가 젊은 연인들이 벤치에서 매우 정열적으로 키스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저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난 저 여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

## 모차란 만큼 후진해 주세요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숙녀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집에 도착하자 세워 달라고 했지요. “예, 여기예요. 여기서 세워 주세요.” 그리고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얼마예요?” 기사가 “10달러인데요.”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잠시 뒤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500미터만 뒤로가 주시겠어요? 7달러밖에 없어서요!” ★



## 돈이 무엇인지!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부부가 재정 문제로 집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우 화가 난 아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내 돈이 없었으면 이 텔레비전이 여기 없었을 거란 걸 명심해요. 또 내 돈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안락 의자도 없었을 거고, 이 집도 내 돈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지요. “웃기지 말라고! 당신 돈이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 없었어, 왜 이래!” ★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7/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7/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7/jk1.htm> (미국)



# 의미 깊었던 중국 본토 여행

종원홍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최근 포모사 동수 20여 명은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중국 대륙을 여행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우리는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을 대륙에 전할 수 있었으며, 여행 중 만난 인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스승님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다.

## 긍정적인 힘으로 세관을 통과하다

세관을 통과할 때 한 사저가 가져온 뉴스잡지가 걸렸다. 그 사저가 속으로 스승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검사원이 물었다. “종교가 됩니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했다. “우리는 어느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은 그저 우리에게 매일 채식하고 명상하며,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실 뿐입니다.” 결국 검사직원은 잡지를 몇 권 들춰 본 후 웃는 얼굴로 모두 돌려주어 그 동수는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 ‘우연한’ 만남

하루는 가이드가 우리를 한약에 발을 담그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곳으로 안내했다. 동수들은 보통 마사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신의 안배인지 우리는 원래의 분별심을 극복하고 스승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 일행 중 한 사저는 침술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혈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에서 젊은 안마사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행이 모두 매일 채식하고 명상한다고 얘기했다. 명상하면 차크라를 열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곁에 앉아 있던 한 한의사가 우리의 대화에 흥미를 나타냈다. 우리가 우리 수행 방법을 더 깊이 소개하기 위해 안마사와 그에게 뉴스잡지를 주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종업원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잡지를 달라고 부탁했다.

또 하루는 수정 전문점을 방문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젊고 우아한 한 아가씨가 불현듯 다가왔다. 그녀는 우리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어머니도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목걸이에 있는 사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을 소개하고 스승님의 사진과 뉴스잡지를 주자 매우 기쁜 모습으로 받았으며, 다른 많은 점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스승님의 사진을 받고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이 외에 차를 파는 상점의 몇몇 점원들도 스승님의 사진을 매우 좋아했지만 우리가 가져온 중문판 뉴스잡지는 이미 다 나눠 준 상태라 우리는 영문 잡지를 주고 관음법문 웹사이트를 알려주었다. 또 한번은 관광 중 쉬는 시간에 젊은 남자가 피리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와 인연이 있음을 느낀 우리는 그에게 만돌린을 연주하는 스승님의 사진을 주면서 스승님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 모녀도 그 사진을 보고는 좋아해서 그들에게도 영문 뉴스잡지 한 권과 스승님 사진을 주자 영어를 아는 한 딸은 앉아서 바로 뉴스잡지를 읽어 내려갔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던지!

## 오래된 습관을 극복하다

어느 날 우리는 높은 산에 있는 호수에 갔는데, 산을 내려올 때는 가파른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했다. 우리 중 한 나이 든 여동수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그날 따라 특이한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렸고 마침 다른 한 사저는 향수 냄새를 매

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신이 장난이라도 친 듯 두 사람은 같이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계단은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았는데,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 사저는 나이 든 사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오불을 외며 정성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수백 개의 계단을 다 내려오게 되었다. 두 사람이 오불에 집중한 결과 한 사람은 향수 냄새를 맡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계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두 사람은 뿌리 깊은 습관을 극복한 것에 매우 기뻐했다.

## 팬더의 진귀한 환대

하루는 팬더 공원을 갔는데 가이드는 팬더가 거의 하루종일 잠만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주로 댓잎과 줄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며 보통 예닐곱 마리만 볼 수 있어도 운이 좋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에 들어서자 거의 모든 팬더들이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어떤 녀석들은 사탕수수를 먹듯이 대나무 줄기를 씹었고, 아직 어린 팬더들은 대나무 울타리 높이 올라가거나 발로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를 굴리며 우리에게 즐거운 광경을 선사했다. 동수들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열댓 마리도 넘게 나왔으니 말이다!

## 예비입문자가 된 가이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운전 기사에게 스승님의 불찬과 강연 테이프를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비록 재생된 시간은 짧았지만 다음

날 가이드는 기쁜 표정으로 우리와 같이 채식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알고 보니 전날 밤 꿈에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 가피를 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그는 성심으로 방편법도 배웠다. 한 사형이 스승님 사진이 든 펜던트를 주자 그는 기쁨에 넘쳐 목에 걸었으며, 운전 기사도 갖고 싶어해서 하나 주자 그 역시 즉시 목에 걸었다. 우리는 인연 있는 또 하나의 영혼이 수행의 대열에 합류해 매우 행복해졌다!

떠날 때 우리는 남은 채식식품을 주며 그가 계속 채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 그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보태 주자 그는 동수들의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예비입문자는 우리가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을 배웅하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는데, 우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헤어지기 아쉬워했다. 정말 가슴이 찡한 광경이었다! ★

# 스승님의 도움으로 비행 사고를 모면하다

포모사 타이베이 씨에 사저 구술/ 포모사 타이베이 왕 사저 기록

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야시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여행사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2002년 5월 24일, 어느 때처럼 야시장으로 출근했을 때 사장의 심기가 불편한 듯했다. 4만 NT를 잃어버린 그녀는 가게를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돈이 나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든 종업원들을 호되게 다그쳤다. 나는 사장에게 내가 그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오랜 시간 설명한후 밤새도록 함께 돈을 찾아봤지만 헛수고

였다. 그래서 사장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계속 화가 난 상태였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에 집에 돌아오니 그때서야 다음날 해외 단체 여행을 인솔하기로 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사장이 돈을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기분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너무 속이 상해 여행을 인솔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생기질 않아 여행사 사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원래 그녀는 나 때문에 그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하자 그녀 역시 취소해 버렸다.

25일 저녁, 막 야시장에 출근하려 할 때 여행사 사장 부인이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다. “우리가 타려고 했던 중국 민항기가 평후 부근 해역을 날다 폭파됐어요. 생존자도 없을 것 같대요. 당신이 안가는 바람에 나도 안 갔으니 다행이지 뭐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한참 위로한 뒤 전화를 끊고 야시장으로 출근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내게 계속 사과했다. 쓰레기통에서 잃어

버린 돈을 찾았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절묘한 안배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 비행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계속 수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 생명을 구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수행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



## 모기를 막는 묘안

청하이 무상사/ 1996. 2. 11.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모기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입니다. 매년 수백만의 어른과 아이들을 죽이는데, 이 숫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암살 등으로 죽는 숫자를 훨씬 웃돕니다. 작지만 흉악하기 그지없는 이 악마는 매년 최소 4백만을 죽이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에 의해 이상한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모기가 너무나 많아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요! ‘죽이고’ 싶어도 다 죽일 수 없으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지요. (중국어로 ‘죽이다’와 ‘어리석다’는 발음이 비슷함.) 그러니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아이들을 재울 때에는 모기장을 꼭 치십시오. 냄비를 덮듯이 말이에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리고 아이들을 그 속에서 재우고, 좀더 큰 애들도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기를 죽일 필요 없이 모기장과 방충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방충망은 들어오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그물 구멍이 얼마나 큰지 나도 들켜버릴 수 있을 정도 이니까요. (대중 웃음) 화신 스승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니, 모기는 말할 나위 없지요! 방충망을 살 땐, 아주 작은 모기도 들어올 수 없게끔 촘촘한 것을 사십시오. 방충망 중엔 바람도 잘 통하면서 모기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것이 있습니다. 구멍이 그렇게 크니 방충망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기들은 밤에 망원경으로 보듯 그물망을 명확히 잘 볼 수 있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충망을 설치했더라도 저녁에 너무 일찍 불을 켜지 마십시오. 되도록 손전등을 활용하거나 맨눈으로 보려고 하고, 시간이 좀더 지나 모기가 자러 간 다음에 불을 켜십시오. 대략 저녁 5시에서 7시까지는 모기가 밥 먹는 시간입니다. (대중 웃음) 그때쯤이면 모기가 버글버글하다가 9시나 10시쯤 되면 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모기가 밥 먹는 시간엔 불을 켜지 마십시오. 집안에 불을 켜지 말고 바깥 불을 켜십시오. 안에 몇 마리 있던 모기도 바깥에 불이 켜지면 나가고, 안에 불을 켜면 없던 모기도 생기니까요! ★





# 잘못을 만회하는 좋은 방법

청하이 무상사/ 1992. 1. 1.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203



이전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단식을 할 때 하루는 한 힌두교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말 겁니다. 아무도 짬 구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단식 하고 계시니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로 인해 굶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옥에 갔을 때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는 간디에게 빵을 하나 공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다 드시고 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에게, “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길, 전에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전쟁 당시 이슬람교인에 의해 자식을 잃어 자기 역시 이슬람교인의 한 아이를 잔인하게 죽였는데 지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부모가 없는 이슬람교인의 아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공부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를 이슬람교인으로 키우면 됩니다.”

## 긍정적인 방식으로 죄책감을 풀다

난 간디가 말한 그런 방법이 그 사람의 입장을 바로 찢어 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그런 방법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주 훌륭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줄어들 테니까요. 아울러 아이를 키우면서 부자지간의 기쁨도 느끼고 아이가 자라며 배우는 과정도 지켜 볼 수 있겠지요. 또 부모 없는 고아를 맡아 키움으로써 그 스스로 위안을 삼고 가치 있게 느끼며 자신감과 만족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죄책감도 상쇄될 겁니다.

만약 그가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더더욱 소용없겠지요! 우리가 매일 아무리 자신을 책망해도 내면의 죄책감은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좋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걸 아니까요. 더 큰 즐거운 느낌으로 원래의 죄책감을 희석시켜 거의 없었던 것처럼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큰 기쁨을 느낄 때엔 죄책감이 누그러져 내면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 엄청나게 쌓여 있던 눈도 녹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



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나흘 간 계속 눈이 내리고 날씨도 매우 추워 눈이 두껍게 쌓였지만, 일단 해가 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그 모든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밤낮으로, 그것도 며칠간 연달아 눈이 내리는 바람에 사방에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지만 해가 나자 모두 천천히 녹아 없어졌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음 깊숙이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을뿐더러 마음도 답답하고 압박감도 크겠지요. 이것은 또한 주변 사람에게도 일종의 압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두운 곳에 깊이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기껏해야 한번 웃고는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런 즐거움은 우리 죄책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결국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을 벌충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이 솟아 나옵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참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잡아 자기가 가지려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편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않고 언제나 자기만 좋으면 되며,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이며 전제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등급이 낮고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장이 비교적 많고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얻지 못한 탓에 무명하여 이생에서 수행이 좋지 못하고 더디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이어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은 왜 불쌍하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

니다. “저는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나요? 이미 참회했으니 된 것 아닌가요?”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훈계하고 돕고 격려하며 깨우쳐 다음에는 나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든 적어 두었다가 가능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습관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스스로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두 방면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점만 생각하며 어두운 경계 속에 빠져 긍정적이고 상쇄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으며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벌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요.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일종의 위안과 힘이 생겨 차츰 그 죄책감이 들던 일들을 잊게 되고 나쁜 습관도 자연스레 바뀌게 되어 결국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또 남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자신의 죄책감에 압사당하겠지요. 지옥은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불보살이나 누군가만이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므로, 우리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도록 교육받기 위해 지옥에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고 더 긍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면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두고 더 나아가 보시를 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만을 그만두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원래 잘못을 벌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며, 또 그래야만 업장을 씻을 수 있습니다. ★

## 스승과 종생 간의 인연 관계

청하이 무상사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질문:** 스승님, 그저 감사드리고만 싶습니다. 저희끼리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진아를 조금이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얼마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승님: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종종 스승님을 ‘아시아의 공주’라 불렀습니다. 그게 스승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지요. 제 차에 있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시고는 스승님이 제 스승이란 걸 아셨는데, 아버지는 비록 수행하지 않았어도 절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시아의 공주님이시군요!” 순간 저는 아버지가 해탈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해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는데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스승님: 스승이 아버지를 돌봐 줬군요. 문제없지요.

**질문:** 스승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스승님: 아버지 역시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요. 그가 스승을 알았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스승을 모르더라도 스승의 힘은 그들을 돌봅니다. 게다가 그는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좋아해

서 이름까지 붙여 주었으니 더 많은 보살핌을 받았겠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공주’는 꽤 많은 호칭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대중 웃음)

**질문:** 질문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승님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전생부터의 인연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스승님을 따른 겁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셀 수가 없군요.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인연을 갖고 있지요. 이를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견본책자를 읽은 후 쓰레기통에 던지며 “변해라, 압!” 한다든가 하는 거지요. (대중 웃음) 나쁜 인연도 인연이에요.

다음과 같은 건 아마 좋은 인연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스승을 따르는데, 여러분은 그 스승을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스승을 욕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요. “스승님, 그녀는 너무나 무지하니 부디 그녀를 도와주세요.” 하는 식이지요. 그러나 그 생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고집이 세서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겠지



요.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왔을 때는 스승이 여러분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따르지 않아도 그 스승은 제자에 대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거지요. (대중 웃음)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스승을 믿지는 않았지만 스승의 책을 읽고 나서 ‘아, 멋지구나’ 하고 생각한다거나 스승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혹은 스승을 만났을 때 물이나 무언가를 줬다면, 스승은 다음 생에 여러분을 더 많이, 더 쉽게 도울 것이며 스승과의 관계 또한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에서는 해탈하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모두 해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스승은 바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아무 문제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신이기 때문에 ‘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억지로 그들을 위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무수한 개인이지만 합치면 하나의 신인 것입니다. 단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요. 손에 많은 손가락이 붙어 있지만 한 손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무엇을 원하든 모두 신의 뜻입니다. 그도 신이니까요. 그러나 두뇌가 종종 험방을 놓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뜻과는 달리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 너한테 좋은 거야. 남자친구를 사귀어 봐. 어찌고 저찌고.” 그러나 적어도 스승을 봤을 때 무언가를 주거나 공손히 인사를 했다면 설사 여러분이 세속의 천국을 즐기느라 너무 바빠 저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도 스승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인과를 뿌린 것이지요.

다음 생에 다시 돌아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매우 친근한 느낌을 받고 스승의 말은 무엇이든 믿을 겁니다. 전생의 인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좋은 인과입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스승을 믿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해탈을 원치 않아 스승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음 생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 스승이 오기만 하면 바로 믿어 버립니다. 이미 좋은 인과와 좋은 인연을 맺어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인과를 맺었으면 매우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스승은 때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생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나쁜 인연이라도 인연은 인연이니까요. 어떤 인연이든 좋게 풀릴 때까지 계속되지요. ★

## 동정심 역시 기도다

질문: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다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은 순리대로 일어날 테니 저는 그냥 명상할 뿐이지요. 상황



이 그다지 좋지 못하면 명상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곧 ‘그들은 신이다. 그들이 이 상황을 선택한 것이다. 어쩌면 이를 통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경우,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엄청난 공부가 되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여러 면에서 바뀌고 성장할 수 있었으므로,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스승님: 기도하고 싶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야 당신이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자기 위안인 셈이군요.**

스승님: 그래요. 때로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이지요. “신이시여, 부디 당신의 뜻대로 뭐라도 도움을 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그 일을 통해 이로움을 얻고 공부하여 당신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도록 하소서.”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 모두 신을 알게 됩니다.

**질문: 기도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그냥 명상하자.” 하고 맙니다.**

스승님: 하세요! 그뻔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더 많이 깨달고 수행의 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스승님: 그럼 좋아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고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신이 어떤 식으로든 만사를 돌본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제가 직접 느낀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확신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길 당신이 바래도 그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켜볼 뿐이지요. 동정심 역시 일종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과 동정심을 품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좋은 생각이 전달되니까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신 내면에 있는 신입니다. 결국 신이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질문: 아마 최고의 기도는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승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지요. ★



## 우리는 모두 우주적 대계획의 일부분이다



**질문:** 스승님, 한 위대한 영혼은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으며 스승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다시 스승님께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테이프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은 곧 만물이다. 신은 하나의 위대한 영혼이다’라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제가 테이프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저 자신이 스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모종의 방식으로 스승님의 모든 부분들을 당신께로 수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어찌면요.

**질문:** 한 위대한 영혼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질 수 있나요? 그건 만물을 포함하는 하나의 위대한 존재인 신과는 다른 것입니까?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스승님: 예, 그건 다른 것입니다.

**질문:**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전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체이면서도 한 개체이니깐요. 단지 전체를 이루기 위해 각기 다른 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뿐이지요. 몸을 이루려면 손가락과 발가락, 눈, 코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큰 코 하나만으로는 전신이 될 수 없지요. (대중 웃음)

**질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승님을 볼 때 편안하게 느끼는 거군요. 마치 흩어진 영혼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처럼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 대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계획은 마치 위대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단체의식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일을 수행하여 자신을 진보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질문:**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아주 편안한 느낌입니다.

스승님: 그렇지요. 입문 후 여기 오는 신실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같고 우리는 하나로서 지금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기에 일단 우리가 연결된다면 당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또는 최소한 나의 일부분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물론 스승은 그 자신을 수백, 수천만 개의 존재로 나눠 온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질문:**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스승님: 그러기도 하지요. 때로 스승은 그로부터 나온 ‘신’ 들을 데리고 자신을 돕게 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며 좋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스승의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질문:**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스승님: 힘들 때문가요, 아니면 가장 좋았을 때문가요?

스승님: 천만에요. 신께 감사하  
세요! ★

질문: 힘들었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이기도 하지요.

스승님: 좋아요.



##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6.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39B

질문: 스승님, 저와 어머니는 고아를 몇 명 입양해 키우고 있는데 더 많이  
입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어떤 종교인이 말하길 입양을 한  
다 해도 그 아이의 인과를 바꿀 수 없으니 이견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하  
고 있는 일이 올바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어떤 일을 해서 기분이 좋다면 옳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의 마음이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고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대로 하십시오. 업장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걸 원치 않았을 테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  
은 일이라고 느꼈기에 인류를 위해, 제자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질문: 그럼 입양한 아이한테 문제나 곤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  
요?

스승님: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이 좋아하고 또 그럴 능력  
이 된다면 그냥 하십시오. 또 자신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하고 싶고 또 그들을 돌볼 능력  
이 된다면 능력이 닿는 만큼 입양해  
서 기쁘게 키우십시오. 신은 결코  
그런 일을 막지 않을 겁니다. 설령 당  
신이 그들의 업장을 받는다 한들 그  
러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에 온 건 업장을 받기 위해서인데  
요. 할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겁  
낼 필요가 없어요.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냥 하십시오. 문제없습  
니다. ★

# 로니와 신비로운 송과선

미국 캘리포니아 뉴스그룹

2년 전, 한 베트남계 미국인 가족이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 LA 센터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그 가족의 어머니와 두 아들 중 한 명이 입문한 상황이었는데, 사저는 둘째 아들인 로니(가명)도 입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로니의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을 때 로니는 15세가 가까이 되었지만 선천성 다운 증후군으로 인한 지능장애로 정신연령이 6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로니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매우 독특하고 행복했을 뿐 아니라 타고난 자비심을 갖고 있었으며 스승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돈독한 소년이었다.

LA로 오기 얼마 전 로니는 대퇴골 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매일 아침 울면서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웃으며 일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그날은 어째서 울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어젯밤 스승님이 다리를 만져 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화신 스승님이 로니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스승님께서 자주 그의 꿈에 나타나셨으며, 때로는 불사조(불속에서 다시 재생한다는 전설의 새)를 타고 날기도 했다고 얘기했다. 물론 로니의 지능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 낼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는 불새가 뭔지도 알지 못했다. 단지 “꼬리가 긴 큰 새였는데, 여기에서 저쪽 차고에 닿을 만큼 컸어요!”라고 묘사할 뿐이다. 로니는 또 이 꿈에서 스승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 여러 행성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주말이 되면 로니는 가족과 함께 LA 센터를 자주 찾아오곤 했다. 어머니와 형이 명상하는 동안 그는 센터 주방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는데, 자주 두 손을 모아 매우 공손히 스승님 모습에 절하곤 한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로니의 형은 로니가 학교에서 더 이상 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완전채식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인에게 알렸다. 로니의 형은 로니가 센터에 자주 왔던 덕분에 영적으로

많은 진보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2001년 6월에 프레노에 강연하러 오셨을 때, 로니의 어머니는 로니의 입문을 신청했다. 로니가 16세가 조금 못 되었을 때였다. 하지만 로니는 관음사자의 입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중에 관음사자는 로니가 16세가 되면 국외조와 연락해 방편법을 배우도록 허락을 구하라고 제안했다. 관음사자는 로니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신의 내면의 가르침을 함구하고 채식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완전히 소화해 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로니가 정확히 16세가 되던 몇 달 후, 그의 어머니는 로니의 입문을 다시 신청했다. LA 센터의 연락인 중 한 사람이 이전 관음사자의 제안에 대해 사저에게 얘기한 후 국외조에 이메일을 보내자 즉시 로니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보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로니에게 방편법을 가르치도록 책임을 맡은 연락인은 ‘어떻게 명상에 관한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며 계

속 자문하면서 그에게 무사히 방편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로니의 형과 이야기를 하다가 로니가 개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 학습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니의 학습 특성을 이해한 연락인은 곧 ‘명상’과 ‘교수법(敎受法)’이라는 항목을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만화 형식으로 명상을 가르친 것이었는데 간단한 절차에 따라 설명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아름다운 체험을 나타낸 그림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 완전 컬러로 복사했다.

또 다른 매우 유용한 교재는 포모사의 한 사형이 제공했는데, 그는 2년 전에 한 어린이가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메일로 연락인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이 그림은 원추형의 송과선을 나타낸 것이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과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영혼의 보좌’라고 언급한 송과선은 이마 가운데 지점에서 들어간 뇌의 안쪽 기하학적인 중심에 있다.

방편법 허락을 받은 지 2주

후 로니는 어머니, 형과 함께 LA 센터를 찾아왔다. 이날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다. 그림을 손에 든 연락인은 로니를 가르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두들 깜짝 놀란 가운데 로니는 단 3분 만에 명상을 배울 수 있었다! ‘라이언 킹’에 나온 명상에 관한 장면을 보고 이미 정확한 자세를 배웠던 것이다!

연락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로니에게 위에 언급된 만화와 송과선의 그림을 보여 주고 그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었다. 가르치는 동안 그림은 가장 큰 도움을 주어 로니는 그 단순한 시각 자료를 통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송과선의 그림은 로니에게 스승님이 그의 뇌 안 어디에

계신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왔으며, 연락인은 로니에게 지혜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이마에 빈디(전통적인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찍는 점)를 찍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연락인이 명상할 준비가 되었고 묻자 로니가 즉시 정확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삼매에 든 것이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던 로니는 시간이 다 되자 가볍게 환기 받고 깨어났다. 로니에게 방편법을 전수하는 동안 스승님은 그의 손상된 뇌를 거쳐 완전한 그의 영혼에 직접 도달하셨던 것이다. 로니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큰 축복을 받아 자유로웠으며, 그의 모습은 경이 그 자체였다. 성경 말씀대로 말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느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8) 반면 소위 ‘정상적’인 두뇌에는 세세 생생 축적된 생각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으니, 진정 장애가 많은 건 누구인가? 이제 로니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단체명상에 참석하며 스승님의 사랑을 통해 매일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로니의 순수하고 겸손한 예를 통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

## 웨르크 슈리흐

사형과의 인터뷰

(원문 독일어)



질문: 슈리흐 씨, 만나 뵈게 되어 기쁩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슈리흐: 예, 저 역시 이 자리에 있게 되어 기쁘군요. 전 독일 베를린의 웨르크 슈리흐입니다.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지요?

슈리흐: 5세 때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두세 달 빨리 바이올린을 시작한 친구의 첫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 큰 흥미가 생겨 반드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생각했지요.

질문: 그 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함께 공부하셨습니까?

슈리흐: 네, 드레스덴의 한 음악 학교에서요.

질문: 그리고 1989년에 베를린으로 오셨군요.

슈리흐: 그렇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베를린으로 오게 됐는데 시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작곡가를 가장 좋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슈리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들의 곡은 거의 연주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대형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는데 바하 같은 작곡가의 곡을 잘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하는 제가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슈리흐사형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민첩한 손놀림으로 바이올린을 통해 로맨틱하고 잔잔한 선율을 선사한다. 5세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한 그는 30년 간의 연주 경력을 통해 음악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심오하게 해석할 능력을 얻게 되었다. 다음은 최근 에 가진 인터뷰다.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이지요. 물론 연주하고 싶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과 교향곡도 많이 있지만요. 그런 곡들을 연주할 때면 정말 기쁩니다.

**질문:** 바하 외에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습니까?

슈리호: 있고말고요. 당연히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음악엔 놀랄만한 영감이 담겨져 있어서 들을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의 작품은 그냥 우연히 쓰인 게 아닙니다. 또 결코 수정한 법이 없었지요. 다른 작곡가들이 여러 차례 곡을 고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영감에서 흘러나와 완벽한 곡을 이루며 창작되었습니다. 그는 머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감을 악보에 다 받아 적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면에 있는 엄청난 악상을 적어 나갈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곡들을 작곡해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 그 외 특별히 좋아하는 다른 작곡가가 있습니까?

슈리호: 차이코프스키의 작품들도 대단히 좋아하는데, 비창 교향곡을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브룩크너의 작품도 무척 아름답지요.

**질문:** 안톤 브룩크너 말입니까?

슈리호: 네, 안톤 브룩크너요. 브룩크너의 4번 교향곡은 모두들 감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곡의 마지막 3분 정도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매우 신성하고 고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 보세요. 정말정말 아름답습니다.

**질문:** 어떻게 해서 영성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슈리호: 네, 말씀드리지요. 악기를 배우려면 집중이 요구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정 훈련을 거쳐야 기법을 배우는데 그래야 음악세계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기법이 없다면 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선 자신만의 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본질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연주 속에 쏟아 부어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마다 다른 피아니스트와 구별되는 표현방식과 연주법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르죠. 그래서 함께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 보면 각자 해석하는 법이 달라, 어떤 이는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며 마치 구름을 떠다니는 듯 여유롭지만 다른 이는 힘찹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해선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지요.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각 개인을 나타내지요. 이걸 신기한 일이지만 그래야만 좋습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선율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보다 힘이 넘치는데, 각자의 특색에 따라 음악의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연주법은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자기 자신을 그 소리에 부어넣으니까요. 음악가들 중에는 음악의 세계로 도피해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 자신의 내면에 파묻혀 눈을 감아 버리지요.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나는 그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종종 나 자신을 보고 내면 세계의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내게 있어선 마치 나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존재들의 공존을 발견하라는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나중에 더 나은 인간 존재가 될 테니까요. 음악은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쁨을 전해 주는 대사(代使)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따뜻한 마음과 보다 사랑이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인류가 걸어야 할 최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칭하이 스승님께 귀의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저는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보다 섬세하게 만들고, 짧으나마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진보해 자신의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전 칭하이 스승님이 베푸는 수많은 자비와 사랑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 사랑을 보고 있노라면 감동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성장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나누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온 삶이 헛되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질문:**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 중 어떤 부분에 가장 매료되었습니



까?

슈리흐: 저는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는데, 스승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사랑 속에 품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유머 감각도 아주 뛰어나고 말씀이 매우 분명하시지요. 스승님이 발산하시는 명량함과 자유로움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질문: 스승님의 예술 작품에도 이끌렸나요?**

슈리흐: 처음엔 아니었어요. 스승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그런 점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는 스승님이 시를 쓰시는지 몰랐는데, 훗날 전에 시를 쓰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쓰시겠지만요. 또 그림도 몇 점 보고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 스승님의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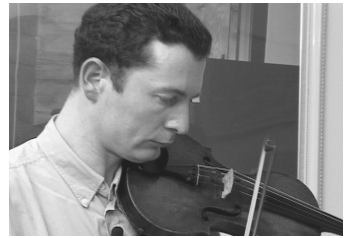
슈리흐: 네,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지요.

**질문: 스승님이 작곡하신 곡들은요?**

슈리흐: 물론이지요. 오늘도 두 곡 들었습니다. 비디오로 봤을 때와는 반대로 약간 슬프게 들렸는데, 아주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질문: 만약 스승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슈리흐: 글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지만 스승님은 이미 다른 제자들을 통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은 이제 저에겐 다급한 질문이 아닙니다.



## 슈리흐의 마지막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 역시 자신의 거울이지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좋은 경험을, 때로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 자신의 견해지요. 가능한 자기 자신을 많이 경험하고, 좋은 것은 나누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최근 어떤 지휘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지만, 음악가라고 다 훌륭한 인간인 것은 아니다.” 음악가들은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음악가들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재능을 선물 받았으므로 그 스스로 진보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인터뷰는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제57편에 방송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웹사이트

[http://ap.hichannel.com.tw/play?url\\_id=72989](http://ap.hichannel.com.tw/play?url_id=72989)(모듬 - 독일어)

[http://ap.hichannel.com.tw/play?url\\_id=72988](http://ap.hichannel.com.tw/play?url_id=72988)(광대역 - 독일어)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 내 마음을 아시는 스승님

어느 날 갑자기 시후 사무실에 들르신 스승님은 내 책상 앞에 오셔서 물으셨다. “보고할 일이 없나요?” 나는 갑작스러운 스승님의 출현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직 일도 끝내지 않은 터였지만, “예, 있습니



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스승님을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정신없이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희한한 일은 좀 전까지 내 앞에 놓여 있던 서류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스승님을 계속 서서 기다리시게 만들게 되어 당황한 나머지 귀까지 붉어졌다. 그러자 스승님은 당신의 우산을 들어 내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하나 가볍게 툭툭 두드리셨다. 그 동작이 너무나 가볍고 재빨라서 어리둥절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바로 내가 찾던 서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며 경의에 찬 표정으로 스승님을 바라보았는데, 스승님은 ‘이건 별것 아니야’라는 듯 시치미를 떼고 웃으며 나를 바라보셨다. ★

## 시기 적절한 도움

때로 스승님은 이전에 지시하셨던 일을 갑자기 떠올리시고는 일의 진척상황과 결과에 대해 묻곤 하셨다. 스승님이 물으실 때면 그때서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곤 했다. 예를 들면 자료들을 조심스레 보관하지 않아 훼손되었다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님이 아무렇게나 던지신 질문들은 시기 적절하게 일어날 착오들을 미연에 멈출 수 있도록 해준다.



스승님은 일단 일을 지시하시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다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곧 손을 쓰신다. 때로 시간 때문에 스승님께 직접 뵙고 말씀드리지 못할 때라도 마음속으로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스승님이 곧 오셔서 물어보신다. 그리고 나서 스승님의 조언을 얻고 나면 일이 바로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 스승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다! ★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 무언의 사랑의 노래

한번은 스승님께서 외국에서 시후로 돌아오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 며칠 쉬시고 나서 한결 나아지신 스승님이 우리를 보러 사무실에 오셨다. 스승님의 자장은 너무나 고요해서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날 스승님이 사무실 가운데 통로를 따라 걸으며 가피를 주셨는데도 양쪽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형들은 사정도 모른 채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누며 스승님이 옆을 지나가신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스승님의 길게 늘어뜨린 머리와 장밋빛 볼, 반짝이는 맑은 눈은 너무도 아름다워 우리는 모두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스승님은 수줍게 미소 지으시며 우리의 사모의 눈빛을 뒤로하신 채 조용히 사무실을 가피하셨다. 그날 스승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스승님이 떠나신 후, 사무실엔 온통 스승님의 독특하고 풋풋한 향이 떠돌았고, 모두들 아주 자유로운 경지에 들어 오후 내내 로맨틱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

## 내적인 유대 관계

인도의 위대한 요기인 요가난다가 외국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단상에 올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내면으로 그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의 스승은 인도에서부터 축복을 보내 주었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는 물 흐르듯 법문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날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

예를 들면, 어떤 출가자가 전에 스승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가 외국에서 흥법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는 스승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없던 질문도 있어서 말문이 막혔다. 그때 재빨리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자 갑자기 도에 관한 말을 구구절절 막힘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사실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스승님이 그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답변할 수 있었는지 몰랐던 것이다. 사실 스승님은 외면으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스승님의 다음의 말씀처럼 말이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되도록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해줘야 할 말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 권의 책을 씁니다 해도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스승과 제자들은 내면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므로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설령 여러분이 내 옆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해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외적인 형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혹은 직접 꾸짖어 가르치고, 때로는 대중 이야기하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해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건 내면으로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 전에

배운 적이 없는 것도 갑자기 설명할 수 있게 되며, 한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이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일으킨 순간 이런 감응은 곧 사라집니다. 그때는 예고,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문이 닫히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주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칭하이 무상사/ 1990. 11. 14.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138) ★

##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

어느 날 시후의 대중들을 불러 모으신 스승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모두에게 자리에 앉아 명상 하라고 하셨다. 스승님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우리와 함께 명상을 하셨다. 그날 따라 주위는 유달리 조용했고, 스승님 옆에 앉아 있던 나는 유난히 강렬한 체험을 했다. 관음할 때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음류를 누리며 기쁨에 취해 영원한 사랑의 물결에 혼신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승님이

우리를 조용히 환기시켰을 때까지 그런 상태에 있던 나는 눈을 뜨고서도 반쯤은 축복에 빠져 있어 ‘이것이 야말로 높은 경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사랑으로 충만하신 스승님의 두 눈은 내게 답을 주셨다.

스승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전하시는 가르침은 그 어떤 강연보다도 수승하다. 말은 없으나 영향력과 이로움은 오히려 영원하기 그지없다. ★

##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포모사에 머물던 초창기에 스승님은 종종 각 센터를 순회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곤 하셨다. 당시의 시자들은 스승님을 따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밤늦게나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생기곤 하였는데, 어쩌다 너무 피곤해서 빨래를 하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우면 스승님은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일깨워 주셨다. “내일은 또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래를 마치도록 해요.”

스승님은 시후에 계실 때 장주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공구를 쓰고 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바로 원래 있던 자리에 안 쓴 것처럼 넣어 두세요. 그래야 뒤에 쓰는 사람이 편합니다. 아무리 일이 늦게 끝나도 일한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구도 깨끗이 씻은 후 잠자리에 드십시오.” 때로는 제자들이 함부로 두어 비에 젖은 공구를 보시곤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모두를 일깨우셨다. “대중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건 자신의 공덕

을 아끼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단체생활은 재가와는 다르다고 일깨우시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

## 장부에 올릴 것

언젠가 선철에서 나는 각국에서 온 동수들에게 필요한 일용품들을 파는 부스를 맡게 되었다. 그때 스승님이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물건을 고르라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떠나시기 전 그 품목들을 스승님 앞으로 장부에 올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다. 나는 스승님을 본 순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신이 멍해진 데다 모든 것이 스승님 것이니 스승님이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일

이라 생각했기에 장부에 올려 놓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스승님은 항상 사려 깊게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편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작은 일도 주도면밀하게 처리하셨다. 만일 스승님이 일깨워 주지 않으셨다면 산만한 나는 이 일을 다음 담당자에게 일러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 장부 책임자는 결산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승님의 일처리는 정말 세심하고 명확하다! ★

## 못 줍기

깨달은 스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항상 커다란 가피력이 숨어 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에고를 버리고 늘 스승님의 지시대로 행한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거쳐야 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건물을 수리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을 때, 스승님은 땅에 못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시고는 옆에 있던 제자에게 그것을 주우라고 하셨다. 무슨 일인지 그 제자는 줍지 않았고, 스승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줍지 않았다. (결국 줍긴 주웠다!) 후에 스승님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공부

해야 할 겁니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 <영어>

#### 734 스승의 손길

2001. 12. 26-27.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국제선

#### 735 과감히 변화하라

2001. 12. 28-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국제선

### <영어 + 중국어 자막>

#### 669 신의 자비

1999. 11. 27. 남아공 케이프타운 강연

#### 664 인과의 법칙

1999. 8. 4. 미국 뉴욕 마리웃 호텔 단체명상

### <영어 + 프랑스어 자막>

#### 656 영성은 역경 속에 빛난다

1999. 6. 7. 아일랜드 더블린 강연

#### 648 전쟁을 종식하는 법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강연

#### 671 깨달음을 얻자

1999. 11. 21. 이스라엘 텔아비브 강연

### <영어 + 한국어 자막>

#### 395 사랑만이 유일한 종교이다

1993. 11. 14.  
미국 텍사스 휴스턴 라디오 KLDE와의 인터뷰

#### 656 영성은 역경 속에 빛난다

1999. 6. 7. 아일랜드 더블린 강연

### <영어 + 네덜란드어 통역 + 한국어 자막>

#### 647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라

1999. 5. 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강연

### <영어 + 불가리아어 통역 + 한국어 자막>

#### 651 사랑과 경이로 삶을 채우자

1999. 5. 18. 불가리아 소피아 강연

### <영어 + 헝가리어 자막>

#### 491 악마의 장모

1995. 7. 15-16.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명상

### <영어 + 노르웨이어 통역 + 헝가리어 자막>

#### 661 신과 하나된 삶

1999. 6. 2. 노르웨이 오슬로 강연

스승님의 외국어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만물 동일체’에 대한 성찰

미국 샌프란시스코 밋바이 사형  
(원문 영어, 중국어)

입문하기 전 나는 ‘만물 동일체(萬物同一體)’에 대해 들어 보긴 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다. 입문하고 나서도 그 이치에 대한 스승님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번처럼 가슴 깊이 체득하진 못했다.

2002년 7월 28일 단체명상 중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른 많은 도시의 동수들과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하시는 스승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짝막하지만 유쾌한 말씀 가운데 스승님은 ‘만물 동일체’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관음 법문 수행이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셨다. 오늘날 이 전지구적인 진보는 수행자가 가져온 가피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하면 스스로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세계와 우주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며, 관음 수행자가 늘어날수록 이 세계는 더욱 고양되고 나아가 이 지구는 다른 진보한 행성들과 같은 등급으로 올라가 그들과 직접 교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날 스승님은 관음법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증하셨다!

스승님의 강연을 듣고 난 후, 나는 ‘만물 동일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행복했다.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만물 동일체’의 도리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상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한 개성과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의 안배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와 같은 썸이다. 엔진과 타이어, 핸들,

그리고 기타 부속들은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서 차가 달리도록 각자 자신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면 차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을 봐도 그렇다. 우리는 이 ‘영혼의 사원’이 하나의 ‘소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랄한 음악을 들으면 손은 자연스레 박수를 치고 발은 춤추고 싶어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레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느끼며,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온몸이 긴장되어 악몽을 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범죄 영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육체의 어떤 부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거나 신구의가 청정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온몸에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대의 경우엔 행복할 테지만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자 나는 ‘만물 동일체’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스승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수행은 우주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이루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 어느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장님’이기에 못 보거나, 우리의 ‘무지’로 인해 그 영원불멸의 진리가 왜곡되고 손상될 뿐이다! 스승님을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신에 대한 신심을 지니며 또한 자신의 수행 등급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영혼이 갈망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 신과 함께 동일체가 될 것이다! ★

# 크나큰 우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어린 왕자/ 홍콩

7월 28일 저녁 홍콩 동수들이 스승님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갖게 되자 내 마음은 정말 흥분되었다! 입문한 후 13년 동안 나는 스승님을 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놓치지 않고 참가했다. 그 모든 기회에서 얻은 이로움은 막대했지만, 이번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나는 가장 큰 가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사랑에 폭 잠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환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화상회의가 있기 전 동수들이 매우 즐겁게 마음을 모아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화합의 기운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최근 동수들과 함께 일한 경험은 정말 아름다웠으며 일하는 동안 내내 행복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따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으며, 나 자신이 신의 존귀한 아이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승님, 이 온 마음과 뜻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느낌과 스승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난 여태 몰랐었네  
당신을 만나 이제야 깨어났으니  
온 마음, 온 뜻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전부이신 스승님,  
영원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수천 년을 정처 없이 떠돌던 방랑자에게  
사랑을 내려 주신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유일하신 당신은  
저를 내면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돌아가고  
제 내면의 진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전 빛과 소리 속에 살아가며  
스승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희열을 누리겠습니다.

## 포모사 종합 보도

스승님의 사랑스런 가르침과 축복 속에서 관음가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 풍요롭고 조화로운 포모사 동수들의 삶을 위해 포모사 전국 센터는 2002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 따라 각기 특색 있게 준비된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나게 즐기면서 심신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기쁨이 넘치는 캠프 분위기 속에서 동수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다.

### 2002 노장년 모임

연로한 동수들을 대상으로 한 2002 노장년 모임이 경치가 뛰어난 포모사 중부의 서호 리조트에서 개최되어 포모사 전국 각지에서 온 약 200명의 장년 동수들이 3일 동안 멋진 일정을 보냈다.(그 중 80대 이상은 4명, 70대는 21명이 끼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인생 설계, 대인 의사소통 과정, 간단한 운동과 건강진단을 포함한 건강 유지법 등의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문예 공연, 노래방, 산림욕 등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행사진행요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행사 곳곳에 접목시켰는데, 풍부하고 재미있으면서 실용적인 내용들은 참가자들의 심신과 영혼을 하나로 통합시켰으며, 독창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기자들과 서호 리조트 기획부서는 동수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모임은 아침저녁의 명상 시간 외에 기상 체조 시간에서부터 다양한 특색을 가진 저녁 모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알차게 짜여졌으며, 참가자들도 이런 행사 일정에 빠르게 적응해 부끄러운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활기 넘치는 청춘이 되어 '노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했다. 참가한 동수들은 많은 신기한 경험을 하였

▶ 인생과 수행의 경험을 서로 나눈 조별 토론.



◀ 의료진 동수들의 건강 검진. 10여 가지가 넘는 잠재질병에 대해 검진했다.

▶ 국제선 행사와 해외 여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요즘 추세에 맞춰 실용적인 국제 예절 시범 과정이 준비되었다.



세심하게 짜여진 저녁 여흥 시간에 최고령인 87세의 사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많은 추억이 담긴 대중가요 합창에 참여하다.



◀ 아침 몸풀기운동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준비하는 참가자들.



으며, 참가할 수 없었던 연로한 동수들은 다른 동수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각별한 기쁨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존경과 사랑을 경험하며 모두들 감동해 마지않았다.

## 타이산 체험 발표

구급 식량 찾기에서부터 칼과 도끼를 이용한 불붙이기까지, 야생 응급처치에서 로프 사용법까지, 장비와 밧줄로 암벽타기에서 100미터 수직 하강하기까지, 급류 거슬러 오르기에서 수직 하강하기까지 등등 2002 타이산 체험 캠프는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육체적인 기능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젊은 관음 수행자들의 각종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캠프 기간 동안 각 참가자들은 응급처치의 기본 개념 및 자가 처치법, 그리고 야영생활 등 실용적인 기능들을 익힐 수 있었다.

체험 캠프는 라라 산기슭에 위치한 바링 산광 초등학교에서 열렸으며,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짝거리는 눈망울과 수시로 터져 나오는 큰 웃음소리는 이번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도전해 볼 만한 활동은 수직낙하였는데, 이는 3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칭하이 무상사 수륙 구조 대원)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다소 망설이고 겁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최선을 다해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 목표를 달성했다. 난관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정신은 이번 타이산 체험 캠프의 주목적 중 하나였다.

육체적인 활동 외에도 첫째 날 밤 캠프파이어와 둘째 날 밤의 '희망의 빛' 집회는 청소년 동수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록 짧은 3일 간이었지만, 즐겁고 흥분된 경험은 청소년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수륙 구조협회 대원의 안내에 따라 청소년 동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때론 앞으로 포복해 전진하고 있다.



'어떻게 해피요기가 될 것인가?' 시간 동안 청소년 동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양각색의 구체적인 답안을 짜내고 있다.



조교의 지도에 따라 각 동수들이 등반 장비를 이용, 전문가처럼 날렵하게 등반을 하고 있다.



수료식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동수가 조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다.

## 여름 캠프

포모사의 어린이 동수들에게 있어서 2002년 7월 26부터 28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들일 것이다. 이 사흘 동안 ‘미래의 부처’들은 까오슝 청징(淸澄) 호수에 도착해 여름 방학 기간을 맞아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마련된 PK(Paradisical Kingdom) 여름 캠프에 참가하였다. 어린이 동수들은 먹고 노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도반이 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한편, 행사진행요원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세심하게 안내된 3일 간의 행사는 어린 수행자들의 지혜와 담력, 자신감, 인내력을 불러일으키고 협동심과 독립심을 키워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 수륙 구조협회 동수들의 사랑 어린 지도하에 모든 참가자들은 8가지의 시험을 거쳐 암벽타기 등 등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저녁에는 모두들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겼으며, 그리고선 각자 작은 초를 들고 천천히 모닥불 쪽으로 모여들어 모닥불과 촛불이 빛나는 가운데 즐겁고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

많은 어린이들이 기대에 부풀어 고대한 물놀이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 마지막 날에 진행되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어린이 동수들은 물 속에서 빠르고 날쌌던 모습을 보였고, ‘같은 배에서 서로 돕기’ 게임을 통해서 협동심과 단체 정신을 배웠다. 게임이 끝난 후 각자 많은 선물을 받고 주방 팀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맛있는 채식요리를 즐기며 사흘간의 행사는 막을 내렸다. 어린이들은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모자를 내밀어 사인을 교환하였고, 몇몇은 이별의 분위기 속에서 눈시울을 붉혔으며 심지어는 행사진행요원들이 해산할 준비를 할 때까지도 함께 한 쪽에 서서 꼭 붙어 있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했던 사저는 자애로운 스승님의 세심한 안내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동안 포모사 남부에는 사흘간 계속 비가 내렸지만 행사가 열렸던 청징 호수 일대만큼은 짙은 구름이 깔 뿐 비는 오지 않았고, 모든 동수들이 해산하고 나자 바로 호우가 쏟아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행사는 스승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만나서 정말 반갑대...”



어린이 동수들에게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암벽타기. 선입견과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 넘었을 때 그 뿌듯함이란!



각종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 동수들이 스스로 산화공양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신문 조각들이 눈꽃처럼 떨어지자 어린 동수들의 환호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한 어린이 동수들이 난이도가 다른 장애물들에 도전하다.



## 대한민국 소식

### 고향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다

**[서울]** 2002년 7월 13일 서울 센터는 넓고 쾌적한 J&J뷔페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활동은 과거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던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것이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동수들이 열성적으로 행사 준비작업을 도왔으며, 그 중에는 외국 동수도 끼어 있었다.

행사 당일, 하늘은 평소보다 시원한 날씨를 선사해 주었다. 그날 손님 중에는 행사가 있기 전 세 차례나 꿈에서 스승님을 본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꿈에서 우아한 옥색의 옷을 입고 계셨고 두 번째 꿈에선 황제의 복장을 하고 계신 스승님을 뵈었다. 꿈을 꾸 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던 그는 마침내 한 신부의 도움으로 인터넷에서 스승님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신부는 스승님을 우리 시대의 예언자라고 표현했다. 그 무렵 그는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구하게 되었다. 그 후 세 번째 꿈을 통해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신 스승님을 뵈고 난 후 스승님을 뵈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커졌다.

강연이 있던 날 우연히 비디오 강연이 열리는 건물을 방문했던 그의 부인은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고,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그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행사장으로 달려왔다! 이 부부는 굉장히 흥분된 가슴을 안고 강연회에 참석했으며, 강연회가 끝난 후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면서 또한 연락인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주의 깊게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고 있는 참석자들.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손님들이 동수들이 무료 제공한 채식요리를 즐기고 있다.

한 참석자는 버스에 버려진 전단지를 보고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전단지를 보고 관심이 생긴 그는 전화를 걸어 자세한 정보를 문의했고 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영원한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교묘한 안배를 통해 자비로운 신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생들을 인도해 천국의 문을 열어 주셨다. ★

## 홍콩 소식

### 2002 홍콩 도서 전시회에 퍼진 진리의 향기

**[홍콩]** 홍콩 무역 발전국이 주관한 홍콩 도서 전시회가 2002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주최측은 6일 간의 전시 기간 동안 43만 명이 참관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홍콩 도서



홍콩 도서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참관객들.



전시회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홍콩 지역 동수들은 예년과 같이 이 드문 흥법 기회를 잡아 부스를 마련했으며, 전시회 기간 중 많은 열성적인 동수들이 찾아와 작업 팀에 가세해 일을 도왔다.

올해 홍콩 센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종교 코너가 아닌 ‘타이베이 출판물’ 구역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였다. 최근 들어 새로 출판된 많은 스승님의 간행물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주최측은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간행물은 ‘자아개발’에 관련된 서적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대단히 물질적인 홍콩 사람들이 점차 정신 방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실이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향기가 은은히 배어 있는 스승님의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방문객들은 비디오를 시청하고 출판물을 훑어보고 견본책자를 요청하였다. 또한 스승님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뉴스잡지 구독을 신청했다. 한 어린이는 스승님의 그림인 ‘논쟁’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한 관람객은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스승님이 자비의 빛을 발산하는 광경을 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구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부스를 방문한 모든 이들의 영성을 고양시켰다. ★



## 미국 인디애나 소식

### 인디애나 흑인 엑스포에 참가한 관음법문

**[인디애나 폴리스]** 인디애나 흑인 엑스포는 미국 내 이런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다. 올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거대한 풋볼 경기장과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미국 전역에서 대략 25만 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미국 중부 주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인디애나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이 지역의 흑인사회에 관음법문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미주리, 인디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캔터키, 미시간 등 미 중서부 센터의 많은 신실한 동수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또 7월 20일과 21일에는 인디애나 센터에서 선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엑스포 기간 동안 동수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을 많이 겪었다. 행사 구역 중 한 구역은 ‘내면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안내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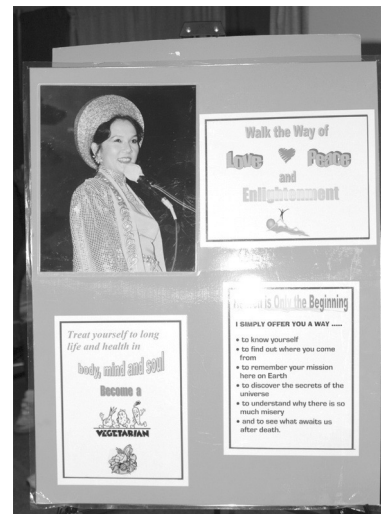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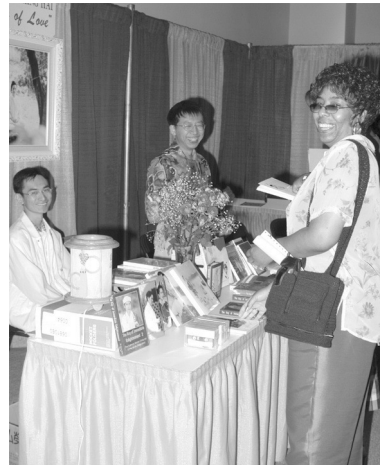
그곳에선 매우 평화스럽고 고요한 분위기가 흘렀다. 우리 부스는 옆에 여유 공간이 붙어 있어서 다른 부스보다 두 배로, 그것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외 인디애나 폴리스 대중 프로그램인 ‘Livin’ for the City’는 엑스포 특집 방송 녹화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인 그린 여사의 진행으로 특색 있는 몇몇 부스와 짝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7월 21일 일요일 방송될 예정인 이 인터뷰에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 명상협회도 포함되었다.

이번 기회는 지역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린 여사는 인터뷰 내내 우리 부스가 있는 ‘내면과 영혼’ 전시장과 관음법문을 함께 소개했다.

이어서 그린 여사가 인터뷰 대상으로 정해진 시카고 센터의 흑인 사저에게 “무상사라니,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저는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으며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기타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수님도 ‘스승’ 으로 불렸으며 그는 ‘너희는 빛으로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 방법은 그 빛을 보고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저의 이 말에 녹화 현장에 있던 관중들에게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엑스포가 막바지에 이른 일요일 오후,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 들러 견본책자를 가져가거나 스승님의 출판물을 구입했으며, 전시회가 끝난 뒤에 방법법을 배우러 오기도 했다. 한편 당일 인디애나 선이를 마친 동수들은 센터의 텔레비전 스피커 주위에 몰려 스승님과 LA 및 기타 지역 동수들과의 인터넷 화상회의를 들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화상회의는 많은 축복과 결실을 맺은 주말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었다! ★



## 칠레 소식

**[산티아고]** 최근 관음사자의 방문으로 큰 힘을 얻은 칠레 동수들은 기쁨을 만끽하는 한편 2002년 7월 13일 수도인 산티아고에 위치한 퀸 문화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문화센터 원장인 후안 빅터 마누엘 씨의 도움을 받아 동수들은 모든 강연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이 외 우리는 일 주일 만에 8,000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강연회는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행사 기간 동안 채식에 관심을 갖게



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채식요리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문화센터 원장은 이번 행사를 매우 환영하며 문화센터에서 채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었다. 강연회 전 산티아고 북부의 라세레나 시에서 이미 한차례 입문식을 치른 바 있었는데, 강연회 다음날에도 입문식이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예비입문자들은 칠레의 먼 도시에서 왔는데, 그 중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입문식이 끝난 후 새로운 입문자들은

모두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에 매우 감사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센터의 일에 바로 참여하여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보여 주었다. ★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휴양 야외 선이 행사

**[토론토]** 토론토는 다국적 도시이다. 이 토론토에서 주민들과 건전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삶을 고양시키면서 또한 지구촌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협동심, 상호 지원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힘은 단체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에 토론토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 속에 2002년 6월 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휴양 야외 선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선이 행사에는 오타와, 몬트리올, 윈저, 캐나다 런던 등 가까운 센터 동수들이 참가하였다. 선의 두 번째 날에는 맛있는 바비큐 요리와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을 마친 후, 모두들 평온함과 행복감에 젖어들었고, 뜨거운 오후의 태양 아래 어린이들은 물장난을 시작해 그 웃음소리가 온 곳에 가득 퍼졌다. 더욱 재미있었던 것은 나이 든 동수들도 물



어른들이 흥겹게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있다.



아침 운동으로 멋진 명상을!

놀이에 합세한 것이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정말 누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어린이가 된다! ★

##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소식

**[킬로나]** 킬로나는 수정처럼 맑은 오키나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푸른 숲에 자리한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흔히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캘리포

니아'로 불린다. 이 지역은 유명한 관광명소로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최근 이 지역 동수들은 킬로나



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스승님을 소개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밴쿠버, 빅토리아, 그랜드 폭스 등 3개 도시에서 온 동수들이 킬로나의 한 사형을 도와 행사를 준비했고, 동수들은 인근 도시를 돌며 견본책자와 전단지들을 나눠 주었다.

강연회는 멋진 성과를 거두어 매우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방편자 단체명상 시간을 마련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와 책을 쉽게 구해 볼 수 있도록 조그만 대여 도서관도 갖췄다.

이번 비디오 강연회는 영성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도시가 작아 영성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주민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곳 사람들은 살아 계신 스승님의 인도하에 최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 집중함에 따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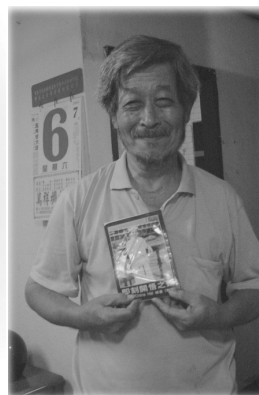
## 포모사 타오웬 소식

### 온정의 손길을 전하다

타오웬의 빠더(八德)에 살고 있는 천씨 부부는 언어 청각 장애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딸이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인 상태여서 가족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 천씨 가정을 방문해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은 천씨 부부를 장기적인 구호 대상으로 정해 매월 정기적인 보조금 지원과 수시로 추가적인 자금과 지원을 제공해 따뜻한 형제애를 전하기로 했다.

2002년 7월 5일 타오웬 센터 동수들은 첸의 딸이 사용해 오던 거담기가 고장이 나서 새 기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새로운 기계를 사서 정기적으로 천씨 가정을 방문해 왔던 루 사형에게 전달을 맡겼다. 루 사형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 이상 없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후 막 나서려고 했을 때, 천씨가 흥분된 모습으로 루 사형이 입고 있던 호법 조끼의 등에 새겨진 스승님의 법호를 가리켰다. (루 사형이 매달 천씨 부부를 방문했지만 호법 복장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천씨는 돌아서서 찬장을 열고는 견본책자를 꺼내 걸 표지의 스승님의 사진을 가리키고 또 견본책을 펼쳐 보이며 다 읽었다는 표현을 했다. 견본책을 들고 밝게 웃는 천씨를 보자 루 사형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루 사형은 천씨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다고 얘기했다. 스승님 법호의 신기한 힘을 목격한 루 사형은 앞으로 천씨 부부를 찾아올 때마다 호법 복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번에 천씨 부부를 방문했을 때, 루 사형은 천씨에게 새로운 거담기 사용법을 알려주느라 천씨의 딸 옆에 여느때보다 오래 있어야 했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고통을 내 몸처럼 더 한층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루 사형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처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결코 말하는 것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루 사형은



루 사형의 조끼에 새겨진 스승님의 법호를 발견하고 기뻐한 천씨가 소중하게 보관하던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들어 보이며 천진하게 기뻐하고 있다.



루 사형이 새 거담기를 조립하고 있는 동안 천씨가 옆에서 옛 기계와 새것을 유심히 비교하고 있다.

천씨의 딸이 하루 속히 호전되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

## 포모사 타이난 소식

2002년 6월 27일 타이난 동수들은 타이난 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신실한 재소자 한 명은 방편법을 배운 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출감 후 평생의 염원인 완전한 해탈 법문을 배우러 시후 센터에 꼭 찾아가겠다고 얘기했다. ★



표1: 2002년 5월에서 6월까지의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 내역 (단위: NT\$)

장 소	날 짜	내 역	금 액	부 록
신 주	2002. 5. 9.	성 요셉 지체장애 센터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 및 헌옷, 위문품 전달	47,900	A
		성 요셉 지체장애 센터의 감사 편지		B
난토우	2002. 5. 10.	난토우 충싱 지방병원이 주최한 한의학 박람회 참가, 영성 도서 증정, 채식 건강음식 시식회	8,800	C
지 룡	2002. 5. 18.	지룽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운동에 협력, 와이무산(外木山) 오우디(澳底) 해변 청소	11,150	D
		지룽시장의 감사 편지		E
시 후	2002. 5. 19.	시후 항공소가 펼친 환경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5. 29.	타이난 명터 개방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5. 30.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6. 2.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과 함께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2. 6. 27.	타이베이 룡산 중학교 야간 조명시설 유지비(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0,000	F
타이난	2002. 6.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동수 지원)	0	
총 계			NT\$97,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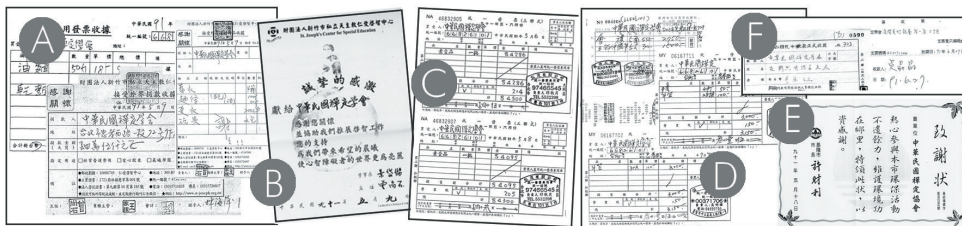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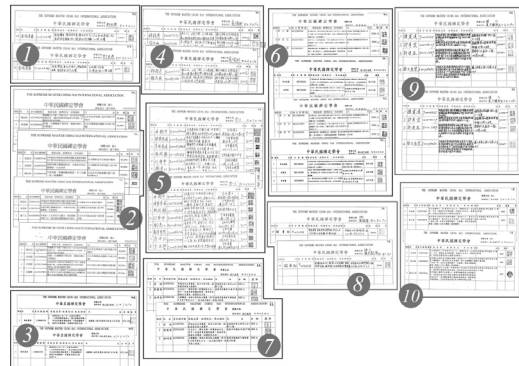


표2: 2002년 5월에서 6월까지의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내역 (단위: NT\$)

장 소	2002년 5월		2002년 6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 룡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7	18,000	7	18,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 주	2	6,000	1	3,000	4
타이중	8	26,000	8	26,000	5
난토우	6	23,000	6	23,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2	14,000	8
까오핑	4	12,000	4	12,000	9
타이통	3	8,000	3	8,000	10
소 계	36	109,000	36	116,000	
총 계	NT\$225,000				



\* 2002년 5월과 6월 대만에서 자선 및 구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내역은 다음의 표1, 표2와 같으며, 총 금액은 NT\$322,850(\$9,495.59)이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를 위한 스승님의 최신 추천 영화 리스트이다. 미국 영화 등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G)** 일반 관객. 모든 연령 시청 가능.

**(PG)** 부모의 지도 권장.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PG13)** 부모의 주의 요망.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 실사 영화

- (PG13)** Music from Another Room (1998)
- (G)** The Country Bears (2002)
- (PG13)** 블루 크러쉬(Blue Crush) (2002)
- (PG)** 스튜어트 리틀 2 (2002)
- (PG)** The Master of Disguise (2002)
- (PG)** 오, 신이시여!(Oh, God!) (1977)
- (PG)** 미스터 마구 (1997)
- (PG13)** 각테일 인생(Mr. Destiny) (1990)
- (PG)** 핑크빛 소동(Seems Like Old Times) (1980)
- (PG)** 스파이 키드 2 (2002)
- (PG13)** 트리플 엑스-xXx (2002)
- (PG13)** K-19, 위도우 메이커 (2002)
- (PG13)** 플루토 내쉬 (2002)
- (PG)** 마이 빅 팻 그리크 웨딩 (2002)
- (PG13)**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 (PG13)** 본 아이덴티티 (2002)
- (PG)** 마이크처럼(Like Mike) (2002)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9-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mel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br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formax@ifxbrasil.com.br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D.F.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sinfon.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센터 595-21-662895  
 paraguay\_asuncion\_10@yahoo.com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이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oflove@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b>애키조나 :</b>	센터 Mr. & Mrs. Kenny Ngo kennyingoaz@hotmail.com	1-623-581-0725 1-602-264-3480			
<b>아칸소 :</b>	Mr. Robert Jeffreys bobj@arkansas.net	1-501-253-8287	<b>미시간 :</b>	센터	HughMDCenter@yahoo.com 1-301-972-5654 bce77@bigplanet.net 1-248-370-2924 smmicenter@yahoo.com 1-612-722-7328 quach001@msn.com
<b>캘리포니아 :</b>			<b>미네소타 :</b>	Ms. Quach Ngoc	
<b>*로스앤젤레스 :</b>	센터 Mr. & Mrs. Tsung-Liang Lin t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gmartin0999@hotmail.com	1-909-674-7814 1-626-914-4127 1-626-284-9994 1-310-836-2740	<b>미주리 :</b>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b>*새크라멘토 :</b>	Mr. & Mrs. Hieu De Tu Saccenter.ca@usa.com	1-916-682-9540	<b>*제퍼슨 :</b>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b>*샌디에이고 :</b>	센터 quanyinsd@juno.com	1-619-280-7982	<b>*롤라 :</b>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lps.org
<b>*샌프란시스코 :</b>	Mr. & Mrs. Tran Van Luu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Mr. & Mrs. Dan Hoang sfcenter@hotmail.com	1-619-475-9891 1-415-753-2922 1-415-333-9119	<b>네브라스카 :</b>	Ms. Helen Wong	1-702-242-5688
<b>*산 호세 :</b>	Ms. Sophie Lapaire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James_Le@adapte.com	1-650-988-6500 1-408-463-0297 1-510-276-4631 1-408-253-8516 1-408-262-8233	<b>네바다 :</b>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b>콜로라도 :</b>	Ms. Victoria Singson torahi@ureach.com	1-303-986-1248	<b>뉴저지 :</b>	Mr. & Mrs. Nghiem The Trung albert_nghiem@hotmail.com Mr. Chang Sheng Chou JohnChou@ymusa.com	1-856-667-3829 1-973-335-5336
<b>플로리다 :</b>			<b>뉴멕시코 :</b>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anawarskas@hotmail.com
<b>*케이프 코랄 :</b>	Mr. & Mrs. Thai Dinh Nguyen Ms. Trina L. Stokes tls77@aol.com	1-941-458-2639 1-239-433-9369	<b>뉴욕 :</b>	Mr. & Mrs. Zhihua Dong dong@phys.columbia.edu	1-718-567-0064
<b>*올랜도 :</b>	Mr. Michael Stephen Blake ekalbekim@yahoo.com	1-407-333-0178	<b>*로체스터 :</b>	Ms. Debra Couch success@coachdebra.com	1-716-256-3961
<b>조지아 :</b>	센터/ Bhiksuni Chan Mo georgiacenter@bellsouth.net Mr. James Collins Ms. Kim Dung Thi Nguyen	1-770-936-9926 1-770-934-2098 1-404-292-7952	<b>노스캐롤라이나 :</b>	Mr. & Mrs. Huynh Thien Tan Mr. & Mrs. Vu Van Phuong ohiocenter@yahoo.com	1-704-535-3789 1-513-887-8597
<b>하와이 :</b>	센터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DorothySakata@aol.com	1-808-735-9180	<b>오하이오 :</b>	Mr. Gilbert Rivera wisdmeye@aol.com	1-937-746-3786
<b>일리노이 :</b>	Mr. tran, Cao-Minh Lam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ilovesuma@yahoo.com	1-773-506-8853 1-773-261-4033	<b>오클라호마 :</b>	Mr. & Mrs. Tran Kim Lam LTRAN2292@aol.com	1-405-632-1598
<b>인디애나 :</b>	Mr. & Mrs. Duc Vu Duchanh@aol.com	1-317-293-5303	<b>오리건 :</b>	Ms. Vera Looijenga Mr. & Mrs. Minh Tran orcenter@hotmail.com	1-503-234-1416 1-503-614-0147
<b>켄터키 :</b>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FNGUYEN@MAIL.STATE.KY.US	1-502-695-7257	<b>펜실베이니아 :</b>	Ms. Youping Zhong youping320@yahoo.com	1-503-257-2437
<b>루이지애나 :</b>	Mr. John L. Fontenot jlfontenot@hotmail.com	1-504-483-3234	<b>텍사스 :</b>	Mr. & Mrs. Diep Tam Nguyen DiepAshleyPa@AOL.com	1-610-352-7787
<b>메사추세츠 :</b>			<b>*텍사스 :</b>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b>*보스턴 :</b>	센터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Mr. & Mrs. Huan-Chung Li	1-978-436-9982 1-508-791-7316 1-978-957-7021	<b>*오스틴 :</b>	센터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tranduongdean@yahoo.com	1-512-396-3471 1-512-989-6113
<b>메릴랜드 :</b>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b>*달라스 :</b>	센터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mechat@email.msn.com Mr. Weidong Duan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DallasCenter@hotmail.com	1-214-339-9004 1-972-395-0225 1-972-517-5807 1-972-206-2042
			<b>*휴스턴 :</b>	센터 Ms. Carolyn Adamson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DNgyuen376@aol.com Mr. & Mrs. Robert Yuan	1-281-893-8300 1-713-6652659 1-281-251-8812 1-281-251-3199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robert.yuan@hp.com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h.biglobe.ne.jp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genesis@mb.infobears.ne.jp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워싱턴 :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유태인	02-795-3927
★ 푸에르토리코				이지자	02-599-1701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이원석	051-894-6645
***아시아***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인천	신현창	063-254-5824
★ 포모사				인천 센터	032-579-5351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대구	이재문	032-244-1250
	Mr. & Mrs. Loh, Shih-Hung	886-2-23756784 shloh@ndmctsg.edu.tw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김익현	053-633-3346
	Mr. Chu, Chen Pei	886-37-724726	대전	한선희	053-767-5338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차재현	053-856-3849
★ 홍콩	센터	852-27495534		대전 센터	042-625-4801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광주	김수동	042-254-7309
★ 인도				광주 센터	062-525-7607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안동	조명대	0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안동 센터	054-821-3043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yadari@zahav.net.il	제주	김삼태	054-821-3043
★ 인도네시아			★ 마카오	제주 센터	064-99-6113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 말레이시아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Mr. Tai Eng Chew	62-21-6319061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i.com	팔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gym99@hotmail.com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바가누르	976-121-21174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 미얀마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51-667427
			★ 네팔	Mr. Sai San Aik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berlincenter@hotmail.com
	Mr. Bishnu Neupane	977-61-21201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neupanebishnu@hotmail.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Mr. Shiva Bastola	977-61-28255			49-174-5265242
		pokharacenter@hotmail.com			ngoc-thao.nguyen@gmx.de
★ 필리핀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dusseldorfcenter@hotmail.com
	마닐라 센터	632-842-8828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manilach@hotmail.com			HamburgCenter@gmx.de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핀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chinghai@singnet.com.sg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ChingHai@aol.com
★ 스리랑카			★ 그리스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70927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jean@sol.lk			Razahidah@hotmail.com
★ 태국			★ 네덜란드		
방콕	센터	662-674-2694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bkk_c@hotmail.com			Vothuong5@cs.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edasnlad@samsorn.stou.ac.th			m.mannaart@planet.nl
	Mr. Wu Peir Yuan	66-1-8248294	★ 헝가리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7126			heaven.bud@mail.matav.hu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Mr. Lux Tamas	36-309-611994
콘캔	센터	66-43-261878		Ms. Dora Seres	36-1379-1924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 아일랜드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bernardleech@unison.ie
		sound@gmx.at	★ 노르웨이		
★ 벨기에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148			norwayqy@online.no
		hugo_berton@hotmail.com	★ 폴란드		
★ 불가리아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oldruslan@yahoo.com			quanyin_pl@yahoo.com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hinghaiplovdiv@mail.bg			czakra@interia.pl
★ 체코			★ 포르투갈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prague-center@chinghai.cz			lisbon_center@hotmail.com
	Mrs. Marcela Gerlov	42-0-608-265-305	★ 러시아	Mrs. Deborah e dos Santos	351-0-96-618-7249
		chinghai@chinghai.cz	모스크바		quanyindaugther@yahoo.co.uk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zeljko@mindless.com	★ 슬로베니아		boulgakov@tri-el.ru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 핀란드					dbk@siol.net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 스페인		
		hoanghanh@jippii.fi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Anne Nystrom	358-9-793902		Ms. Lidia Kong	34-91-7756670
		anne.nystrom@surfeu.fi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 프랑스			발렌시아	Ms. X.C. Wang & Ms. X.C. Yang	34-96-3336208
파리	센터	33-1-4300-6282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Mr. Yu Xi-Qi	34-96-3726401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스웨덴		valenciachinghai@yahoo.es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몽펠리에			hang.nguyen@spray.se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widlund@hem.utfors.se
★ 독일					





말피	Mr. & Mrs. John Wu	46-40-215688 wu.john@telia.com	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스위스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rs. Rosemary Nagtegaal	61-3-9307-6982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Pham Van Bon	61-3-9470-4573
★ 영국				Mr. Alan Khor	61-3-9857-4239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l.wellers@ntlworld.com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런던	센터	44-208-3742743		Mr. Ly Van Tri	61-8-9244-7661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스코틀랜드			★ 뉴질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 오세아니아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호주				Mrs. Chang-Wu Wong	649-534-0986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타우란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바이라인 베이/					

##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우아하고 섬세한 니트 웨어

## 린넨의 감촉으로 로맨틱한 여름을!

SM 천의 여름용 여성복이 새로 나왔다. 이번 디자인은 통풍과 땀 흡수성이 뛰어난 린넨을 주소재로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 치밀한 조직으로 착용감이 뛰어난 비스코스레이온을 합성해 제작되었다. 이 여성복은 현대 여성의 요구에도 잘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정리, 보관하기에도 편리하다. 6가지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고 넉넉하고 편안해 출퇴근이나 모임에도 이상적이다.

### 크루 넥 니트 셔츠(세 가지 디자인)

1. 네크라인과 밑단에 파도형 줄무늬와 차그만한 보석을 넣고 독특한 민속풍을 가미해 우아한 느낌을 준다. 고상한 순백색, 낭만적인 연보라, 정열적인 오렌지색 등 3가지 색상.
2. 간결함과 자연스러움이 특징. 가슴 아래 부분에 두 줄로 직사각형 무늬가 들어가 있다. 네크라인을 이중 처리하여 한결 우아해 보인다. 빨강, 연보라 등 2가지 색상.
3. 자연미를 살려서 린넨의 천연색에 다양한 무늬를 넣어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멋지게 연출해냈다.

### 다양한 색상의 니트 셔츠(두 가지 디자인)

1. 칼라 끝을 다른 색상으로 처리한 라펠 칼라에 V 네크라인, 기루줄 무늬가 들어가 눈에 확 들어온다. 군청색과 야쿠아 블루, 린넨 천연색과 흰색, 린넨 천연색과 군청색 등 3가지 배색 디자인.
2. 칼라 끝을 다른 색상으로 처리한 라펠 칼라에 V 네크라인 두 가지 형태의 사각 무늬가 수 놓아져 젊고 활기찬 모습을 연출한다. 현재는 린넨 천연색 한 종류.





현대적인 스승님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중생들을 축복하시다.  
많은 나라의 동수들이 스승님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한 이웃을 경험했으며  
스승님은 인터넷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시공을 초월해 전파하셨다!

